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드로잉 영역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신 혜

2010 년 8 월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드로잉 영역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성 진

김 신 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8 월

김신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년 8 월

The research for drawing of middle school art
education

Shin-Ha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ung-Ji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ung-Jin Park, Prof. of Art Education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드로잉 영역에 관한 연구

김 신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성 진

현대미술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드로잉에 대한 인식의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드로잉은 미술 형식에 있어서 부차적인 위치를 면하지 못했지만, 20세기의 현대미술에서는 드로잉의 영역이 확대되고 하나의 독자적 장르로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드로잉 교육의 체계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고, 드로잉 교육의 내용과 구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함이 없다. 100년이 넘는 미술교육의 역사에 비해 드로잉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중학교 미술 교육의 드로잉 교육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진과 같이 재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을 성실하게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내고 실재감과 생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로잉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미술 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드로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드로잉 교육을 통한 청소년기의 감성과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초 드로잉 활동 프로그램의 제시와 적용을 통하여 기초적인 표현능력과 그 바탕이 되는 조형적인 관찰능력을 신장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분석, 드로잉의 특성 탐색, 드로

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드로잉 지도방법 도출, 다양한 방법의 드로잉 지도방안 시도를 연구의 내용으로 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였고, 본론에서는 중학교 드로잉 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미술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드로잉 영역의 내용 및 지도 분석을 하였고, 단계적 드로잉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자 드로잉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드로잉 학습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드로잉 교육의 지도방안으로서 첫째, 드로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드로잉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셋째,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시켜 변화된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드로잉 수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드로잉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념적 시각 표현에서부터 순수한 시각으로 대상의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드로잉 교육은 청소년기의 감성과 인성을 창의적으로 풍부하게 형성할 수 있는 미술교육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드로잉 지도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드로잉 교육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II. 중학교 드로잉 미술교육의 현황	3
1. 미술 교육 과정의 이해	3
2. 드로잉 영역의 내용 및 지도 분석	10
3. 드로잉 수업의 한계	21
III. 드로잉의 이해와 학습	23
1. 드로잉의 개념 및 특성	23
2. 단계적 드로잉 학습 방법 연구	36
3. 드로잉 학습 프로그램 개발	40
4. 드로잉 학습 지도 모형	43
IV. 결론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9

표 목 차

표 1. 교과서 드로잉 쪽수 분석	10
표 2. 교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1
표 3. 교학연구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2
표 4. 대한교과서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3
표 5. 두산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4
표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5
표 7. 삶과 꿈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5
표 8. 지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6
표 9. 중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내용 중 드로잉 단원 분석	17
표 10. 드로잉 지도 계획안	42
표 11. 드로잉 학습 지도안 제시	52
표 12. 1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54
표 13. 실습지 작성 예	58
표 14. 2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59
표 15. 3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63
표 16. 4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67
표 17. 5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72
표 18. 6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77
표 19. 7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81

그 립 목 차

그림 1. 매쓰 제스처	31
그림 2. 매쓰, 라인 제스처	31
그림 3. 라인 제스처	31
그림 4.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	31
그림 5. 씨스테인드 제스처	31
그림 6. 블라인드 컨투어	33
그림 7. 연속선 드로잉	33
그림 8. 드로잉 지도 과정	41
그림 9. 감정의 종류	55
그림 10. 칸딘스키의 백색위에 #2	56
그림 11. 고희의 삼나무 숲	56

그림 12. 마르틴존슨 헤드의 늪의 황혼	56
그림 13. 고양의 다가올 슬픈 예감	57
그림 14. 렘블란트의 광대	57
그림 15. 학생작품(중1), 종이에 잉크	57
그림 16. 플로이드의 블라인드 컨투어에 의한 정물	60
그림 17. 한지아 학생 작품	61
그림 18. 두 명의 학생이 그린 손의 부분	62
그림 19. 의자의 여백 그리기	64
그림 20. 손의 공간 설명	65
그림 21. 나무 그리기 학생 작품	66
그림 22. 자화상 학생 작품	66
그림 23. 윈슬로우 호머의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	66
그림 24. 고희의 빈센트의 방	68
그림 25. 호크니의 헨리 쉐트자일러와 크리스토퍼스코트, 아크릴릭	69
그림 26. 러스차의 몰드지	69
그림 27. 키리코의 어느 거리의 신비와 우울	69
그림 28. 호크니의 미완성의 자화상과 모델	69
그림 29. 비례 관측의 과정	70
그림 30. 각도 관측의 과정	70
그림 31. 두개골 분할 오류와 정정한 그림	73
그림 32. 반측면의 비례	74
그림 33. 측면 도해	74
그림 34. 블랭크 채우기	75
그림 35. 4/3측면의 자화상 도해, 정면 도해	75
그림 36. 빛의 논리, 명암법	78
그림 37. 명암법에 의한 학생의 그림	79
그림 38. 헨리 푸셀리의 화가의 초상화	79
그림 39. 명암법의 단계	80
그림 40. 니콜라스 푸생의 성(聖)가족	80
그림 41. 컨투어 드로잉과 제스처 드로잉	82
그림 42. 제스처 드로잉 학생 작품	83
그림 43. 피카소의 게르니카 습작 드로잉 과정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미술에서는 드로잉의 영역이 확대되고, 독자적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드로잉은 필수적 예비단계, 미술형식에 있어서 부차적 위치를 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드로잉 교육의 체계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드로잉이란 가장 간단한 표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표출할 수 있는 무한히 폭넓은 미술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표현활동인 드로잉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주변의 친근한 사물을 통하여 드로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독자적인 드로잉에 대한 가치 변화와 드로잉교육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에서 미술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체계적인 드로잉 지도를 통하여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드로잉 교육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제시를 통하여 표현의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돕고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시도해봄으로써 표현에 있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드로잉 교육의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표현 활동과 연계되는 드로잉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적인 표현 능력과 조형적인 관찰능력을 신장시키고 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흥미 유발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드로잉 교육의 고정관념과 인식의 변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안의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감성과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초 드로잉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드로잉에 대한 올바른 개념 파악과 드로잉의 역할을 알아보고 드로잉이 차지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드로잉 수업의 한계를 분석하여 드로잉 교육의 실제적인 방안으로 중학생에게 적합한 드로잉 학습 지도안과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범위는 미술 교육 연구 중 형태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평면 회화 영역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을 중 1, 2학년으로 제한하였다.

학습 프로그램에 있어 수업의 도입 단계에는 긴장 완화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표현의 단계에서는 오른쪽 두뇌를 활용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와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결과 및 효과는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유발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II. 중학교 드로잉 미술교육의 현황

1. 미술 교육 과정의 이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미술에 의한 인간 형성의 의미를 가지는데, 청소년기의 특성상 미술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의 의의는 정서교육과 창의성 육성이다. 또한, 최근 교육학에서는 인식의 한 방법으로서 예술적 경험도 중요시되고 있다.

초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 단계인 중학교 미술교육의 내용 선정과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제7차교육과정에서 살펴보면, 미적 체험 활동에서는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표현하며, 문화와 관련된 미술로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고, 표현활동에서는 자기 활동의 원리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감상활동에서는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미술교육에서 표현 활동에서 자기 활동의 원리는 기초 드로잉 교육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적 방향 제시는 중요하며, 이러한 방향은 드로잉 교육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드로잉 교육은 근대 미술이 시작될 지점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드로잉 교육은 기능주의 교육에 불과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미술교육은 일본의 군수품 생산을 전제로 한 기술교육이 중심으로 전략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미술교육은 1950년대 미국의 교육사절단에 의해 경험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술대학에 미술교과가 개설되면서 미술교육의 향상의 계기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우리 미술 교육은 과도기적 단계를 잘못 겪으면서 미술 교육의 본질을 확립하지 못한 채 교육 개정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아직도 근대 미술 교육의 기능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서구의 드로잉 교육의 역사는 르네상스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전개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르네상스부터 드로잉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면서,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이미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데생이 시도되었고, 18세기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생물 드로잉이 강조되고, 근대 독일에서도 드로잉 교육이 강조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공교육 차원에서 드로잉 교육이 논의되었고, 미국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하여 드로잉 교육을 강조하고, 1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산업드로잉이나 기계드로잉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드로잉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드로잉 교육은 아직 미숙한 단계이지만, 서양의 드로잉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맞게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1) 미술교육의 의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잘 조화된 전체로서의 인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지적인 교과학습, 기능이나 기술의 학습이 아닌 인격적 통합에 역점을 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에 속하는 미술교육의 성격은 주로 미술에 의한 인간 형성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식 위주와 기능 위주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각 개개인이 지닌 미술에 대한 다양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 본래의 견지에서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¹⁾

이와 같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미술은 인격형성과 인간성 구현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 감동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감정 또는 흥미가 변하기 쉬운 상태에 있어서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그림만을 위한 교육이 아

1) 양관식(2002), “중학교 미술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6.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p.4.

나라, 인격수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간이 지닌 자유롭고 순수한 감정과 정서가 발견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이다. 즉, 미술과 같은 아름다운 예술작품 및 미적 대상과 접하게 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서를 점점 순화된 상태로 이끌어간다는 관점이다.

둘째, 주로 60년대에 많이 제기된 주장으로서 소위 창의성의 육성이다. 즉, 미술과 같은 창조적인 경험을 많이 시킴으로써 만들고 연주하고 하는 기능(skill)을 기른다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예술교육을 흔히 예능교육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곧 ‘예술적 기능의 교육’을 뜻하는 전통적인 지칭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술교육의 의의 외에, 최근에 교육학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점이란 곧 ‘인식’(knowing)의 한 방법으로서의 예술적 경험이다.”²⁾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청소년기의 인성 교육에 더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미술교육의 의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 교육 과정 속의 미술 교육은, 정서교육과 창의성 교육,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표현 영역의 드로잉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특징 및 내용

미술교육의 내용은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함께 중등교육에 속한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초등교육과 전문단계인 대학교육과의 중간 단계가 중등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등교육에서 중학교는 일반 교육의 성격을 띤 초등교육과 전문 교육의 성격을 띤 대학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중등교육에서의 중학교 과정은 중등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중학교 교과 교육의 직접적인 매개는 교과 내용으로서, 교과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활동의 핵심이 되므로, 중학교 교과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2) 김춘일(1995), 「아동미술론」, 서울미진사, p.33.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 과목 중에 미술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술과 교육 내용을 크게 미적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과 관련지어 구성하고 있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맞추어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적 체험 활동을 보면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표현함으로써 미적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경험과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생활과 민족문화, 세계문화와 관련된 미술로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발견하고 자연 조형 생활과의 관계를 생각해봄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환경,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미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미술을 생활에 활용해 보려는 적극적 의지와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표현활동에 대해서 프뢰벨(Froebel, 1782~1852)³⁾은 인간 교육에 있어서 ‘자기 활동의 원리’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작품활동으로서는 인간의 본질, 인간생명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감상활동에서는 문화적, 시대적 맥락에서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과 문화의 관계, 시대의 변천의 따른 미술의 역할 등을 탐색해보고 미술사적인 특성을 이해하며, 미술문화의 특성,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처럼, 중학교 미술의 표현 영역의 자기 활동의 원리는 창조적이지자 자발적인 활동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미술 교육에서 이러한 원리는 찾기 힘들다. 표현 영역에 대한 지도 과정 개발로 미술 교육 과정에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3) 프뢰벨(Froebel, 1782~1852) : 독일의 교육가, 독일의 교육가. 그리스하임에 일반 독일 교육연구소를 창설하였고 블랑켄부르크에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세워 유아교육에 앞장섰다. 이후 보모양성과 유치원사업 보급에 주력함과 동시에 여성교육의 발전에도 힘썼다.

3) 드로잉 교육의 변천 과정

교육적 목적 의식을 갖는 미술교육으로 드로잉 교육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향제시가 확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드로잉 교육의 역사를 모르거늘 왜 이러한 드로잉 교육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드로잉에 관한 교육은 미술의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먼저 우리나라의 드로잉 교육의 역사를 잠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미술이 시작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 1885년,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교사 양성 교육이 시작 될 무렵이었다. 이때에는 습자와 도화가 정규 교과목으로 지도되었다. 이후 1906년에는 보통 학교령이 공포되었으며, 사범학교에서 습자, 도화, 공작이 다루어졌다. 당시 도화교육이란 교과서를 모방하는 연필화, 모필화였으며, 임모주의(臨模主義)나 기능주의 미술교육에 속한다.”⁴⁾ 이는 서양미술의 고대나 중세 드로잉의 역사에서 단순한 드로잉, 기술을 통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드로잉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서구의 합리적인 미술 교육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 전개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채 일본의 군수품 생산을 전제로 한 기술교육(공작교육)을 중심으로 지도된 것이 한국 미술교육의 근대화에 치명적인 불행이었으며, 이러한 어두운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의 미술교육을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뿌리이자 표준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한국 미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부터이며, 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전국의 사범학교와 미술교사들에게 미술 강습을 통하여 창조주의 미술교육사조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의 주입식 사실주의 미술교육이 내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사상과 지도방법은 상당한 기간의 과도기적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1960년대부터 다른 교과와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으나, 학문적 체계와 행정적 지원이 없어서 체계화와 심

4) 도지화(2005), “드로잉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pp.36~37.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승격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술대학 및 여러 대학에 미술교과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미술교육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 교육은 미술교육목표와 상이한 단편적 기법 교육에 아직도 치우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드로잉 교육의 역사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다양한 전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대부분은 모든 미술의 기본을 드로잉으로 보았고, 그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⁵⁾는 미술가들이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드로잉 연습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항상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장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의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모범적인 고대의 인간 형태를 묘사하기 위한 데생이 시도되었다.

또한, 18세기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프랑스의 장식미술학교에서는 생물 드로잉을 강조했다. 생물드로잉 중에서 인물 드로잉은 예술적 영감을 받아 산업 부분에 반영되도록 했다. 근대 독일의 무역학교와 공예학교에서도 수학과 물리학의 학습과 함께 드로잉 교육이 강조되었다.

드로잉 교육이 예술가들의 작업의 기초적인 능력과 기량으로 교육된 것이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공교육의 차원에서 드로잉 교육이 논의되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하여 드로잉 교육이 강조되면서, 1870년 매사추세츠 주는 공립학교에서 필수 교과목 중 하나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드로잉을 지정 교과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산업 드로잉이나 기계적 드로잉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드로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미술의 한 장르이면서 그 의미의 양상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고, 가장 기본적인 숙련의 과정인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지각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드로잉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 19세기 미국의 사례는 드로잉 교육

5)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 :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사상가. 15세기 르네상스미술은 그에 의해 완벽한 완성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조각·건축·토목·수학·과학·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보였다.

에 대한 관심을 미술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따라서 드로잉 교육은 “미술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현대 드로잉 교육에서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로잉 교육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기본과 기초적 맥락은 현 시대의 드로잉 교육과 그 뜻을 같이 해야 한다.”⁶⁾

이와 같이, 미술교육의 근원이 드로잉에서 비롯되었음을 미술교육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에서 드로잉 교육이 아직 미숙한 단계임을 보았을 때, 드로잉 교육에 대한 연구와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드로잉 교육을 발전시켜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서양의 드로잉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맞게 연구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김형숙(2006), 「드로잉과 교육 : 공교육에서 드로잉 교육 운동」, 서양미술사학회, pp.36~52.

2. 드로잉 영역의 내용 및 지도 분석

드로잉 영역에 대한 현행 제7차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7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드로잉 지도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현행 교과서 분석

분석대상 교과서로는 두산, 지학사, 교학연구사, 교학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삶과 꿈 등 1, 2, 3학년 미술교과서 7종을 선정하였다.

제7차교육과정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드로잉 영역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드로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지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1) 중학교 미술 교과서 드로잉 쪽수 분석

드로잉이 표현 영역의 기초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도만큼 미술 교과서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자, 교과서 쪽수를 분석하였다.

드로잉 영역의 교과서 쪽수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드로잉 영역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당히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 교과서 드로잉 쪽수 분석

	교학사		교학연구사		대한교과서		두산		삶과꿈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쪽수	%
1학년	2	2.8	2	2.8	2.8	3.5	1/2	0.7	0.0	0.0	0.0	3	4.2	
2학년	2	2.8	2	2.8		0.0		0.0	0.0		0.0	2	2.8	
3학년		0.0	2	2.8	1	1.4	1	1.4		0.0		0.0	2	2.8
계	4	1.8	6	2.8	3.5	0.7	1.5	0.7	0	0.0	0	0.0	7	3.2

<표 1>의 내용 분석 결과, 드로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과서 총 지면 수에 비해 드로잉이 차지하는 비율이 빈약하다. 드로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드로잉 교육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중학교 교과서 학년 별 드로잉 단원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드로잉 영역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7종 교과서의 드로잉 영역의 비중과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의 드로잉 영역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중학교 1, 2, 3학년별 미술 교과 중 드로잉과 관련된 단원 내용 및 그림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선으로 그리기 ● 내용 소묘의 뜻 선의 특징과 역할 선의 느낌 소묘의 재료에 따른 표현효과 빛과 명암 ● 예시작품 김명국의 달마도 뒤피의 스케치 벤산의 크로키 고흐의 풍경(소묘) ● 학생작품 롤러브레이드(땃생),보자기 에 쓴 도시락(정밀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친근감 있는 사물의 표정 ● 내용 형,양감,질감,동세에 유의하여 선으로 표현하기 기하석고의 명암표현 빛과 명암 재료에 의한 질감변화 크로키, 스케치, 정밀묘사 ● 예시작품 기하석고 명암표현 꽃병의 빛에 따른 명암 표현 재료에 의한 질감표현 ● 학생작품 풍경(소묘), 인물(소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표 2〉의 내용 분석 결과, 소묘의 기초적 과정을 넣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예시작품에서는 작품이 편중된 경향이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하지만, 소묘의 기초적 과정의 대한 도판이나 내용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추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3. 교학연구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사랑하는 사람들 (선으로 그리기) ● 내용 소묘의 뜻 재료에 따른 선의 느낌 다양한 선의 느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과정 제시 소묘의 영역 중 윤곽선 따라 그리기 크로키 우뇌를 이용한 사물인식 설명 ● 예시작품 서세옥의 사람들(수묵화) 마티스의 인물 흉상 드로잉 (얼굴 리소그래피⁷⁾) 라파엘로의 젊은 남자의 초상 (검정초크) 다양한 선 학생작품 댄스(파스텔) 친구의 얼굴(사인펜, 색연 필, 연필로 각각 표현)- 윤곽선 따라 그리기와 자세히 그리기 표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사람들 (움직임을 잡아서) ● 내용 드로잉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나 분야의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 전개 움직이는 모습을 빠른 붓 놀 림으로 속도를 느끼게 그린다. 움직이는 대상에서 새로운 조형요소와 원리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예시작품 박유아의 댄스94Ⅱ (종이, 먹, 춤의 연속 동작을 연이어 그림) 인체의 안 그려진 부분 채우기 (움직임 찾아 그리기, 새로 운 실기지도, 흥미유발) 드가의 아라베스크의 종막 (파스텔) 발라의 끈에 묶여가는 개의 움직임(캔버스, 유채, 미래파) ● 학생작품 농악놀이(석판화), 달리는 사 람들(수묵, 화선지, 크로키) 춤(철사, 호일, 다양한 재료 사용의 예시에 적합지 못함) OHP필름 스크래치 (드로잉 영역의 설명과 연관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아름다운 세상 (소묘로 나타내기) ● 내용 소묘의 뜻 소묘의 표현기법 소묘의 재료와 효과 ● 예시작품 김명국의 달파도(수묵) 학생작품 얼굴(연필, 정밀묘사) 정물(콩테, 뱃생) 마늘(정밀묘사) 손의 움직임 연속드로잉

7) 리소그래피(lithography) : 석판 인쇄

〈표 3〉의 내용 분석 결과, 내용면에서, 소묘가 아닌 드로잉의 한 부분으로서 드로잉 기법을 소개한 부분과 새로운 방법의 실기 지도를 시도한 점이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여 우수한 점이다. 하지만, 한 부분의 드로잉 영역만을 학년별로 다루고 있어, 학생들 자신이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혼란을 느끼기 쉽고, 제시한 드로잉 영역도 지도교사의 학습자료로 만드는데 부족한 내용들이 많다.

표 4. 대한교과서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가까이 있는 것을 살펴서 -형의 기본과 명암 ● 내용 소묘의 표현방법 및 과정 물체의 형, 명암, 관찰 표현, 기하형의 명암 표현 소묘의 질감 재료에 따른 양감 표현 ● 예시작품 쇠라의 밀짚 모자를 쓴 남자 (크레파스, 콩테, 정밀묘사) 자연물 형뜨기(석고) 학생작품 자연물스케치(연필, 색연필) 생사의 노래(수묵담채) 곰인형(연필, 정밀묘사) 어미소와 송아지 (연필, 뿔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보이는 것에서 창조로 -한 가지 색으로 그리기 ● 내용 소묘의 뜻 소묘의 재료 소묘의 종류 ● 예시작품 김종영의 작품P-2(콩테) 마그리트의 거짓거울(유채) 학생작품 장미정밀묘사

〈표 4〉의 내용 분석 결과, 1학년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을 살펴서라는 대제목 안에 학습활동(1)로 포함되어 있는데, 소묘를 표현하는 기법 중의 하나로 단순하

게 보여서 학생들에게는 더 쉬어보일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드로잉과 관련된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형의 기본과 명암이라는 소제목으로 형태의 기본과 명암을 다룰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반면에, 소묘의 표현방법 및 과정, 물체의 형, 명암, 관찰 표현, 기하형의 명암 표현, 소묘의 질감, 재료에 따른 양감, 질감 표현 등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3학년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그리기로 소묘의 표현을 제한하였으며, 다양한 예시작품의 수가 부족하다.

표 5. 두산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주변에 사물 표현하기 -사물의 표현 ● 내용 소묘의 뜻 소묘의 종류 ● 예시작품 박내현의 난(스케치) 학생작품 나뭇잎들(색연필) 잎새(연필) 정물(목탄) 정물(수묵) - 전체적인 내용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나의 모습을 찾아서 -인물의 특징과 개성표현 ● 내용 선으로 그리기 손 그리기 ● 예시작품 김명국의 달마도(수묵) 산의 자화상(펜, 크로키) 김형주의 크로키(연필)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손의 습작(적색 초크, 정밀묘사) 손의 스케치 순서도 학생작품 자화상(연필)

〈표 5〉의 내용 분석 결과, 작품과 예시 작품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시작품을 넣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연결하려고 하였지만, 소묘에 대한 구체적 예시나 내용, 과정이 언급되거나 예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적인 드로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단원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소묘단원 빛과 그림자의 일부로 명암과 양감 수록함. ● 내용 소묘의 뜻과 표현방법 ● 예시작품 학생작품 친구얼굴(볼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표 6〉의 내용 분석 결과, 소묘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1학년에서만 빛과 그림자의 일부로 수록되어 있어, 소묘의 방향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7. 삶과 꿈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표 7〉의 내용 분석 결과, 소묘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적인 형태 표현 능력과 조형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표 8. 지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선으로 둘러싸인 세상 ● 내용: 선의 특성(직선과 곡선) 소묘의 뜻 소묘의 종류 소묘의 재료 ● 예시작품 고흐의 아플르를 바라보며 (펜, 잉크, 풍경 덧생) 이중섭의 그리운 제주도 풍경 (종이에 잉크, 크로키) 김기창의 군마(수묵담채) 뒤 뷔페의 연속된 하루 (유채) 소묘의 재료에 따른 표현 공의 명암의 단계 학생작품-문고리와 짚신(콩테) 학생작품-친구(연필, 크로키) 학생작품-울동(포스터칼라) 학생작품-남파 여(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질감과 양감 표현 ● 내용 양감과 질감 표현을 통한 대상의 실재감 표현하기 사물이 지닌 질감의 차이점 알아보기 ● 예시작품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 (유채화) 콜비츠의 자화상(덧생) 학생작품-전구(연필, 정밀묘사) 학생작품-화장지(연필) 학생작품-바윗돌(수묵) 학생작품-오이와 굴 (연필, 정밀묘사) 학생작품-지우개를 쥔 손(연필) 학생작품-책 위의 컵(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소묘의 창의적 표현 ● 내용 소묘의 의미 소묘의 재료와 종류 표현기법 다양한 재료에 따른 표현 ● 예시작품 박수근의 나무 (연필, 스케치) 미켈란젤로의 리비아 무녀 를 위한 습작 (황갈색 종이에 빨간 분필, 습작) 피카소의 수탉(목탄, 덧생) 레이먼드 페티브의 야구경 기(펜, 스케치) 드가의 등 뒤에서 본 무희 (파스텔) 학생작품-술방울 (연필, 정밀묘사)

〈표 8〉의 내용 분석 결과, 예시작품이 화가의 작품과 학생작품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예시작품의 수가 많아서, 한정된 교과서 쪽수에 비해서 드로잉의 표현방법에 대한 예시가 부족하다.

〈표 1〉 ~ 〈표 8〉의 내용 분석 결과, 표현 영역의 주요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고, 다양한 예시작품은 감상영역에서 보충하고, 드로잉 표현과정이나 표현방법에 대한 그림 예시를 더 많이 넣어야 할 것이고, 예시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드로잉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중학교 미술 교사용지도서 내용 중 드로잉 단원 분석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7종 미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내용 중 드로잉 단원을 분석하여, 드로잉 영역에 대한 지도방안의 전개방식과 방법, 내용을 분석하여 드로잉 지도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다.

7종 미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전체구성, 내용을 알아보고, 1, 2, 3학년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표 9. 중학교 미술 교사용지도서 내용 중 드로잉 단원 분석

교사용 지도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교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 설정이유, 학습목표, 동기유발, 이해, 관찰 및 표현, 감상평가, 평가방법 ● 내용 소묘의 역할 종류, 특징, 그릴 대상 선택, 명암의 단계표현, 평가, 교과서 예시 작품 설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내용구성 이 사물의 정확한 관찰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드로잉법을 추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 설정이유, 학습목표, 동기유발, 이해, 관찰 및 표현, 감상평가, 평가방법 ● 내용 단원설정 이유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학습 목표는 사물의 양감, 질감, 동체 특징 발견, 소묘의 종류의 특징 이해, 다양한 재질감표현 방법 익히기, 빛에 따른 명암의 변화, 입체감, 양감표현 능력기르기를 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p>교학 연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설정의 취지, 학습목표, 학습 준비, 학습전개(탐색, 활동, 정리), 평가, 심화활동, 교과서 예시작품 설명 ● 내용 드로잉의 전통적, 현대적 의미의 개념이 복합 기술되어 있고, 드로잉의 영역 중 윤곽선 따라 그리기(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을 제시하고 윤곽선 따라 그리기와 자세히 그리기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선택활동1, 2 단원설정의 취지, 학습목표, 학습준비, 학습전개(탐색, 활동, 정리)평가, 예시작품 해설, 참고 ● 내용 움직이는 대상에서 조형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며, 생동감 있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으로는 수묵크로키와 석판화, 연필뎃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학습목표, 준비물, 단계(도입, 전개, 정리, 평가), 교과서 예시작품 해설, 참고사항 및 관련 자료 (소묘의 재료) ● 내용 눈높이에 따른 형의 변화, 보는 방향에 따른 형의 변화 표현, 손의 표현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본 수업으로 할 때 도입, 전개, 정리, 평가까지 수록했다.
<p>대한 교과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학습목표, 준비물, 평가, 단계(준비 및 발상, 구상 및 표현, 감상 및 평가) 교과서 예시자료 해설, 참고 사항 및 관련 자료(형의 인지, 소묘의 재료) ● 내용 기하형 석고의 형태 파악과 명암 표현을 통하여 서로의 작품에서 형, 명암, 질감을 비교한다. 재료의 종류와 그 사용법 및 특성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 설정의 이유, 학습목표, 준비물, 평가, 단계(준비 및 발상, 구상 및 표현, 감상 및 정리),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작가설명 및 소묘의 개념, 소묘의 종류, 소묘의 재료 ● 내용 소묘의 기본적인 수업 내용(개념, 표현재료, 밑그림 그리기, 단계적 명암 칠하기)으로 구성됨

<p>두산 교과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본시 학습 목표, 준비물, 학습 지도 내용(도입, 전개, 정리),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평가, 교과서 작품 해설, 참고사항(소묘의 개념) ● 내용 드로잉과 채색화를 혼재하여, 드로잉의 개념이나 이해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이 설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본시 학습 목표, 준비물, 학습 지도 내용(도입, 전개-선 그리기, 손 그리기, 정리),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평가, 교과서 작품 해설, 참고 사항 ● 내용 역시 드로잉과 채색화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케치 후 빛의 방향에 따른 명암을 파악하여 입체감, 양감, 질감을 단계적으로 표현한다.
<p>삶과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p>중앙교 육진흥 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묘 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설정의 취지, 학습목표, 학습 전개 및 지도내용(준비물, 학습 전개-준비 및 발상, 구상 및 표현, 감상 및 정리),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교과서 예시 작품 해설, 참고 자료(드로잉의 개념, 드로잉의 재료) ● 내용 소묘의 뜻, 소묘의 재료, 다양한 선의 표현을 예시하여 드로잉의 개념을 인식시킨 후 조형 표현의 기초 단계로서 사물의 관찰에 의한 전통적인 묘사와 새로운 눈으로 표현하는 개성적인 표현을 함께 다루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설정의 취지, 학습목표, 학습 전개 및 지도내용(준비물, 학습 전개-준비 및 발상, 구상 및 표현, 감상 및 정리),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교과서 예시 작품 해설, 참고 자료(박수근) ● 내용 대상의 명암, 질감, 양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발상과정으로 각기 다른 질감의 사물을 찾아 보고, 예시작품을 통하여 표현방법을 의논한다. 효과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 후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하여 느낌과 차이를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구성 단원설정의 취지, 학습목표, 학습 전개 및 지도내용(준비물, 학습 전개-준비 및 발상, 구상 및 표현, 감상 및 정리),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교과서 예시 작품 해설, 참고 자료(드가) ● 내용 드로잉의 종류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알아보고, 대상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	---	---	--

〈표 9〉의 내용 분석 결과, 전체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드로잉의 기초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 부족하고 드로잉에 대한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과정에 의한 드로잉 영역에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대적인 드로잉 기법을 다룬 교과서는 교학연구사 뿐이고, 드로잉 영역에서 제7차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제7차교육개정안에서는 미술교육 영역의 표현 영역에서 전체구성이나 내용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에 따른 미술교사용 지도서의 드로잉 영역에도 체계적 구성과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드로잉 수업의 한계

〈표 1〉 ~ 〈표 9〉 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미술 교과서의 드로잉 단원은 6차 교육과정의 내용보다는 다소 발전된 양상이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교과서 종류의 50% 이상이 드로잉의 뜻, 드로잉의 종류, 드로잉의 재료 소개 등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로잉의 실기나 드로잉의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지면의 대부분이 예시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드로잉 지도나 실기에 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예시 작품도 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다소 작가나 학생들 작품 중 각각의 것에 편중되어 있어서 좋은 예시작품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소개가 부족하다

둘째, 참고 작품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을 넘는 작품이 많다. 아니면, 중학교 수준 이하의 예시작품도 많다. 적절한 수준의 예시 작품의 배치가 시급하다.

셋째, “드로잉의 작품내용이 사실적 관찰에 의한 정확한 형태, 명암, 질감을 요구하는 기능위주의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드로잉 지도가 곤란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총괄목표로 ‘미술 활동을 통한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고 정하고 그 하부내용인 표현영역의 목표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미술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7종 교과서의 내용은 절반 이상이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기능적인 표현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자신감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소재가 필요하며, 참고 작품의 수준도 학생들이 기능적인 수련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개가 필요하다.

넷째, 현대적 의미의 드로잉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보다는 작가가 자기의 것을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새로

8) 이현수(2004),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드로잉 수업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29.

운 눈으로 보는 발상법이나 동서양의 드로잉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

다섯째, 개성적인 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기운생동’⁹⁾에 의한 동양적인 드로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여섯째, 모든 예술적 행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드로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과서 총 면 수에 비해 비중이 너무 작다. 심지어 중앙교육연구소, 삶과 꿈 교과서에는 아예 소묘단원 설정조차 하지 않아 모든 예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드로잉 교육의 부재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일곱째, 작품의 난이도나 내용 구성 면에서 학년별 연계가 미흡하고, 같은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제목설정에서 드로잉과의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학습할 때에는 드로잉의 개념 파악이 어려울 듯하다.

이와 같이 소홀하게 취급하는 미술교과서의 여건으로 제한된 짧은 시간 속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가르치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학년 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연계성 면에서 심도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 중 창의적인 드로잉 수업을 위한 내용 수록이 비교적 잘 된 교과서로는 교학연구사와 지학사를 꼽을 수 있다, 학년별 연계가 비교적 참신하여 체계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면 할애 면에서는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발상 지도를 하기에는 미흡하다

현행 미술수업에서는 주당 1시간인 교육과정상 드로잉에 할애하는 연간 시수가 4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웠고 시수 부족은 결과적으로 학습내용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했다.

이처럼, 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여건과 미흡한 교과서와 참고자료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엔 역부족이지만, 앞으로 교육개정 방안에 미술영역도 함께 발전될 것이고, 특히 드로잉 영역에 대한 연구 개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9) 기운생동 : 사혁(謝赫)의 육법 중의 하나, 육법은 기운생동, 사혁 육법, 골법용필, 응물상형, 수류부채, 경영 위치, 전이모사이다.

Ⅲ. 드로잉의 이해와 학습

1. 드로잉의 개념 및 특성

현대 미술에서는 드로잉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지하고, 드로잉의 본질은 가장 지성적이고 개인적인 기초적 의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양상의 본질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드로잉의 일반적 의미는 회화, 조각, 건축의 전초적 작업이나 작품을 구상하기 위한 기록을 말하고, 변화된 의미로는 표현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 있어서 드로잉, 데생, 소묘의 관계는 아직까지 구분이 모호하게 인식되어 있고, 정확한 인식을 위한 드로잉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드로잉을 크게 분류해보면, 창조적 드로잉과 준비용 드로잉으로 나뉘는데 순수 미술에서 말하는 드로잉은 창조적 드로잉으로 미술활동의 기본 단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드로잉의 원리에서는, 드로잉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기초 드로잉 교육의 의의를 찾고 적용시킬 수 있다. 드로잉 원리로서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이루어진 대상을 선 원근법으로 평면에 옮기고, 공기원근법으로 색을 칠하며, 비례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찾고, 명암으로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이해하며, 양감, 질감으로 대상을 사실감 있게 나타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로잉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드로잉 교육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찾는다.

고대나 중세의 드로잉은 드로잉을 기술을 통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었지만, 르네상스 시기 이후 드로잉에 대한 연구가 높아지면서 드로잉 교육은 단순한 도제 교육에서 벗어나 순수 미술로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와서는 하나의 독자적 장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드로잉을 크게 분류해보면, 주관적 드로잉과 객관적 드로잉으로 나누고, 드로잉의 기본 기법들은 관찰 시간의 따라 제스처 드로잉과 키투어 드로잉으로 나뉜다.

또한, 제작 시간 및 특성에 의해 크로키, 스케치 데생, 정밀묘사로 나뉜다.

이러한 각 소단원의 내용으로 드로잉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드로잉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1) 드로잉의 개념

드로잉이란 과거의 어떤 그림의 밑그림으로만 단순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드로잉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지되어, 조형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드로잉은 표면에 선을 긋는 행위 및 선이 지배적인 결과물으로써, 통념적으로 채색을 하지 않고 주로 단색선으로 그린 회화표현을 말한다. 드로잉은 화가의 사고가 투영된 가장 지성적인 매체로 회화, 조각, 건축의 기초적인 통제를 한다는 개념이고, 작가의 아이디어와 형상이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래픽한 형태로 드러나는 가장 개인적인 매체이다.

드로잉의 기능과 역할, 표현방법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드로잉의 본질은 대상의 외관을 모방하여 재현하는 예술이다. 선과 그림자에 따라서 자연 혹은 인공의 물체를 형태나 외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 속에 안고 있는 구상과 도안 같은 것을 베껴내는 예술이다. 이들의 표현행위는 수학적 법칙의 도움을 빌지 않고 행해진다. 이처럼 화가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어느 양상의 본질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드로잉(Drawing), 불어로는 데생(dessin), 일어로는 소묘(素描)라고 하고 그 뜻이 '그리다'로 동의어이다.

드로잉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리는 행동, 선으로 그려진 것, 색과 관계없는 형태의 묘사, 초벌 그림이나 초안을 가르키고, 특히 펜이나 연필로 그린 것, 단색으로 선을 그어 형상을 나타낸 것을 말하고, 회화의 기초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 의미의 드로잉의 역할은 회화, 조각, 건축의 제작에 있어서 전초적인 작업을 말하고, 또 다른 역할은 작품 구상의 순간의 발상 기록을 말한다.

드로잉의 변화된 의미로는 고전적 드로잉만을 고집하지 않고, 표현 영역 넓혀가

는 것, 적극적 미의 추구와 재료의 개발이다. 과거로부터 독특한 조형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적이라는 선입관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독창성과 묘법의 다양성에 편중하여 변화된 의미의 드로잉은 느낌이나 생각 이상을 순수하고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되어 가능성이 새롭게 탐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미술에서의 인식에서 드로잉, 데생, 소묘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대에 와서 드로잉은 소묘의 현상이 미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묘의 형태를 드로잉이라고도 한다. 현대에 사용되는 드로잉은 개념적이며 내면 표출적인 것이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제약받지 않은 조형언어의 범주까지를 포함한 넓고 심화된 현상을 가르키고 있다.”¹⁰⁾ 또한, 데생은 화면에 형태, 양감, 질감의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한 완성 작품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어, 대표적인 예로 석고 데생이라는 표현으로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묘는 크로키, 스케치, 데생, 정밀묘사로 구분하며, 데생은 소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드로잉, 데생, 소묘의 관계 설정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아직까지 정확한 구분이 모호하게 인식되어 있다.

드로잉을 크게 분류해보면, 창조적 드로잉과 준비용 드로잉으로 나뉘는데,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완성된 드로잉으로써,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담거나, 대상을 보고 그리더라도 창조적인 정신을 느끼게 하는 드로잉을 창조적 드로잉이라고 한다. 완성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미술가의 재능이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내재적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드로잉의 종류로는 크로키(croquis), 에스키스(esquisse), 에튀드(étude), 카툰(Cartoon)¹¹⁾ 등이 있다.

“준비용 드로잉이란 세부 드로잉, 또는 완성작품을 위한 드로잉으로 타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무대설치, 장식용품을 위해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적인 기능을 갖는 드로잉을 말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버리므로

10) 이강일(1997), 「소묘의 이해」, 미진사, p.7.

11) 크로키(croquis) : 회화에서 초안(草案)·스케치·밑그림 등의 뜻을 지닌 기법상의 용어.

에스키스(esquisse) :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그림을 위한 밑그림, 약화 등이 뜻으로 설계도.

에튀드(étude) : 그림이나 조각 따위의 습작(習作)이나 시작(試作), 음악의 연습곡.

카툰(Cartoon) : 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익살스럽고 간명하게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줄거리가 있는 여러 컷짜리 그림이다.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순수미술에서 말하는 드로잉은 창조적 드로잉에 해당한다.”¹²⁾

이러한 창조적 드로잉과 준비용 드로잉은 곧 모든 미술활동의 기초 단계이자 연결 단계이다. 드로잉만으로도 작가의 재능이나 개성을 포함하여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고, 또한 완성작품을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이자 전 단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드로잉이 미술활동의 기본 단위임을 인식할 수 있다.

2) 드로잉의 원리

드로잉의 원리로는 원근법, 비례, 양감, 질감, 윤곽선과 명암 등이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 데 드로잉의 기초 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다.

형, 형태, 형태서는 윤곽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단순한 윤곽선에 의해서 대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형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는 거리에 의해서 형은 변화한다. 르네상스 이후 원근에 의한 탐구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원근법이라고 하며 거리에 의한 형의 변화는 철저하게 원근법에 의해서 적용된다.

원근법의 종류로는 선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이 있는데, “선 원근법(투시도법)은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체계화된 원근 표현법으로 과학적(기하학) 방법이다.”¹³⁾ 선 원근법은 대상을 일정한 시점에서 보고 평면에 옮기는 방법이다. 소실점과 눈높이를 가지는데, 소실점은 물체의 연장선이 한 곳에 모인 점으로서 보는 사람의 눈의 높이와 같고 수평선이나 지평선상에 생기고 눈높이는 소실점을 지나는 수평선이라고 한다. 공기 원근법(색채 원근법)은 눈과 대상 사이의 공기층이나 빛에 의해 생기는 명도차, 색상차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근경은 강하고 선명하게 중경은 중간 정도로 원경은 흐리고 옅게 나타낸다.

“중세 말 13세기에 와서 시각론이 나타나 르네상스에서 원근법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으며 14세기 지오토의 작품과 피렌체파의 화가들에게서 선 원근법이 확립되었는데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화면 중앙에 이에 대응하는 일정한 점을 설정한 후 지평선을 정하여 화면 규격에 평행하는 몇 개의 선과 한 점에 집중하는

12) 김영나(2001), 「드로잉」, 서울여대조형연구소 공편, SIGONGART, p.12.

13) 클라우디아 베티(1998), 「현대 드로잉 기법」, 하영식 역, 서울: 미진사, p.171.

선형체와의 관계를 탐구한 화법을 개발하여 오늘날의 투시화법이 된 것이다. 1점 투시법, 2점 투시법, 3점 투시법이 있고, 동일한 물체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 원근은 변화한다.”¹⁴⁾

비례는 “전체 속에서 부분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뜻한다. 인체의 비례, 황금분할에 의한 비례 계측봉이나 연필 파인더나 저울추 등을 이용하여 비례를 측정한다.”¹⁵⁾

명암은 빛과 형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회화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재현방법의 하나이며 실재의 대상물을 화면에 그릴 경우에 빛의 명암요법이 있다. 대상의 형태를 관찰하여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 관계 및 그 변화를 파악하여 입체감있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윤곽선과 명암의 톤에 의한 농담과 강약을 이용하여 화면에 물체를 입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흰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무채색의 명도차에 의해서 그 대비관계를 나타내고 형태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명암의 원리는 하이라이트, 반사광, 그림자로 이루어진다.

양감은 “물체가 3차원에 의하여 공간 중에 차지하고 있는 양을 말하며 크게 두 계의 느낌이 합쳐져서 양감이 생긴다.”¹⁶⁾

질감의 종류로는 재질감과 텍스처, 마티에르가 있는데, “텍스처는 물질의 결 묘출한 석을 말하고, 작품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바탕의 결을 말하는 것이다”. 마티에르는 금속, 광물, 천, 종이 따위의 물질이나 재료의 뜻에서 물질적인 사물, 감각적인 재질의 의미를 가지며 물질이 지니고 있는 재질, 질감 등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미술상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그려진 것의 질감, 용재의 질감을 말한다. 재질에 익숙해지고, 기술의 귀결, 화가의 의도가 미적으로 처리 등 근대 이후의 회화는 마티에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드로잉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며, 형태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미술의 기초교육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14) 김영나(2001), 「전개서」, p.17.

15) 베티 에드워즈(2006),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기」, 비즈앤비즈편집부 역, 비즈앤비즈, p.200.

16) 이강일(1997), 「전개서」, p.137.

3) 드로잉의 역사

고대와 중세의 드로잉은 모본 훈련이나 패턴북의 사용으로 미술보다는 기술을 통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 인본주의(휴머니즘 : humanism) 부활,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되면서, 실제 대상을 보고 묘사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고대 조각 모사, 실제 인체가 움직이는 모습, 인물과 옷의 관계, 해부학, 원근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종이가 대중화되면서 드로잉 훈련을 쉽게 만들어주었다. “르네상스 미술가 중 가장 인상적인 드로잉을 많이 남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¹⁷⁾ 그는 항상 스케치북 지참 권장하고, 드로잉은 관찰력과 상상력 키워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라파엘로 미술제작의 체계적인 단계로 발전되었다.

드로잉이 체계적 교육 과정으로 채택된 것은 1563년에 설립된 아카데미아 델 디세뇨(Accademia del Disegno)가 피렌체에 설립되면서였다. 도제 교육에서 벗어나 아카데미아에서 미술교육을 받게 되었고, 미술교육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자리(Giorgio Vasari)는 회화, 조각, 건축을 순수미술과 공예를 분리시키고, 이 때부터 순수미술이 응용미술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아카데미아의 주된 교육은 인체의 뼈대, 소규모 골격 드로잉, 인물의 동작, 얼굴표정, 감정을 나타내는 자세, 고대 조각의 모사, 정물 드로잉 등의 드로잉이었는데, 이는 모두 손과 눈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드로잉 교육에 눈과 손을 훈련하는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에서 확립된 이러한 드로잉의 훈련과정은 이후 20세기까지 미술교육의 주요특징이 되었다. 드로잉은 모든 미술의 기초였다. 드로잉은 형상을 발생시키고 윤곽선을 결정하며 구성에 질서를 준다는 의미에서 색채보다 우월하게 생각되었다.”¹⁸⁾

아카데미의 드로잉 교육에서 교재로 사용된 것이 드로잉 북이었는데, 18세기 19세기에 미술도구가 간편해지면서 드로잉 북이 많이 제작되었으나 드로잉 훈련은 더 기계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고, 17세기부터는 드로잉으로 하나의 독자적 작품

17) 김영나(1998), 「조형과 시대정신」, 열화당, pp.22~25.

18) 김영나(2001), 「전개서」, p.16.

제작하려는 화가들이 배출되었는데,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들이 많았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드로잉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습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완성도 높은 드로잉 작업을 한 미술가들이 나타났다.

현대 미술에서 모방적 기술 연마로서의 드로잉의 기능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이제까지 탐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20세기 전반에 드로잉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콜라주 기법이었다.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에 의해 시도되어 가위로 그리는 드로잉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이 기법은 다른 형태를 캔버스 위에 재배치시켜 새로운 문맥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추상미술의 경향은 프로이트의 잠재의식 이론과 결합되어 1920년대에는 초현실주의 미술로 나타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surrealism) 화가들은 자동기술법(automatisme)¹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을 통해 자율적인 성격을 드러냄으로 가장 개인적이고 자기 고백적이라는 개념을 극대화시켰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신체의 제스처를 통해 내면의 정신세계를 자발적 선으로 분출하여 표현하였다.

1960년대 팝 아트 미술가들은 손으로 그린 흔적을 없애고 기계적인 전형을 선택하였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1960년대 말부터 개념 미술이 부상되었는데, 설치, 대지, 퍼포먼스와 같은 미술형태가 모두 포함되었고, 이러한 현장 위주의 작품들은 실제 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도면, 드로잉, 콜라주 등 여러 가지의 참고기록 자체가 작품으로 전시되고 매매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제스처적이면서 이미지가 풍부한 드로잉 작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²⁰⁾을 대표하는 작품들은 인간의 경험과 상황을 노출시키고 전달하였다. 독일의 신표현주의와 이탈리아의 트란스 아방가르디아 작가들에 의해 나타났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묘사적이거나 보조적이었던 드로잉의 기능은 오늘날에는 그

19) 초현실주의(surrealism)와 자동기술법(automatisme) :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의 문학·예술사조인데, 인간의 숨겨진 잠재의식을 자동기술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무형체를 지향한다.

20)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한 시대의 이념.

역할과 기능이 계속해서 재정의되고 확장되고 있고, 기술이나 재료 구성방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드로잉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회화의 기능은 단편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이러한 이유로 회화와 드로잉의 차이는 더 이상 완성도의 차이로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에서는 팝아트, 콜라주와 같은 개념미술에서 이러한 개념을 배척왔지만,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는 여전히 석고나 누드 드로잉은 미술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미술교육에서 드로잉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검증되어야 하고, 연구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드로잉의 분류

“드로잉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크게 작가의 정서가 강조되는 주관적 드로잉과 전달되는 내용이 중요시되는 객관적 드로잉이 있다.”²¹⁾

주관적 드로잉은 작가의 보다 강렬한 정서를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감상자로부터 강렬한 반응을 유도해낸다.

객관적 드로잉은 “인포메이션 드로잉(Informational Drawing)과 개요도가 있는데, 인포메이션 드로잉은 도표, 건축 설계도, 기계 제작도 등이 있다. 도표, 건축 설계도, 기계 제작도 등은 개념과 생각들을 포함하고, 기록과 정보 목적으로 하고, 개요도는 지적 도면, 개요적 개념적 약속에 의한 표현방식을 말한다.”²²⁾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교량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 드로잉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사실묘사이다. 때로는 사진적 기법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주관적인 효과를 얻는 작가들도 있다. 적지 않은 현대 작가들이 쓰는 이 운동을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²³⁾이라고 부른다.

드로잉의 기본 기법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찰 시간의 길이에 따른 분류

드로잉에는 관찰 시간의 길이에 따라 분류되는 두 가지 기본 기법이 있다.

21) 권여현(1999), 「드로잉의 세계」, 도서출판 재원, p.34.

22) 클라우디아 베티(1998), 「전체서」, p.15.

23)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 : 극사실주의.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회화와 조각의 새로운 경향.

하나는 제스처 드로잉(gesture drawing)으로 덩어리 전체를 재빨리 보아 그리는 방법으로 형태를 전체로서 파악하는 빠른 즉시성, 직접성의 기법이 있고, 관찰력을 기르는 과정, 집중도를 위한 예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스처는 눈과 손을 연마시키고 우리의 잠재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게 해 준다.

컨투어 드로잉(contour drawing)은 15분 이상의 비교적 긴 시간에 외곽성의 초점을 맞춰 그리는 방법인데, 대상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그리는 것으로 전체보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게 해주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방법을 키워 준다. 컨투어(contour)란 단 하나의 깨끗하고 확실한 한정선이며, 입체묘사적이며 대상의 면과 형태의 복잡한 내부선들을 묘사해준다. 형상의 입체적 외양을 강조한다.

① 제스처 드로잉

제스처 드로잉의 종류는 매쓰 제스처(Mass Gesture),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Scribbled Line Gesture), 씨스테인드 제스처(Sustained Gesture) 등이 있다.



그림 1. 매쓰 제스처

그림 2. 매쓰, 라인 제스처

그림 3. 라인 제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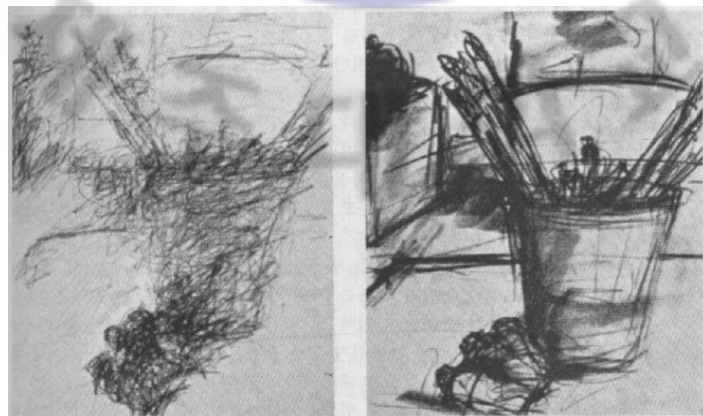


그림 4.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

그림 5. 씨스테인드 제스처

가. 매쓰 제스처

덩어리진 두터운 선으로 그리는 것을 매쓰 제스처라고 한다. 목탄을 화지에 대기 시작하면 떼지 말고 계속 그려야 한다.

나.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는 마구 뒤엀킨 선을 말한다. 잘 써지는 볼펜은 밀도있는 양감을 표출해준다. 형체의 바깥쪽은 애매하고 곱슬곱슬한 선으로 드러낸다. 가장 어둡고 진한 선들은 형체의 중심부에 배치한다. 선은 다양하게 배합하고, 그리는 동안에 손을 화지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다. 써스테인드 제스처

써스테인드 제스처는 대상의 동작과 외양을 결합시킨다. 대상 전체를 재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태를 완성한 후 테두리를 명확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제스처 드로잉은 관찰과 집중력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스처 드로잉을 구사하면 드로잉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킨투어 드로잉

킨투어 드로잉은 대상에 집중해서 천천히 부분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그리는 기법으로, 느리고 집중적이다. 킨투어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부분이 검토를 요하며 아웃라인과 달리 공간 묘사적이다. 대상물의 면에 있어 분명한 구조상의 변화가 있는 곳 혹은 명암, 텍스처, 색채 등의 변화가 있는 곳만을 이 선으로 나타내야 하고, 단 하나 날카로운 선을 구사해야 한다. 이미 그어진 선 위에 덧긋지 말 것이며 고치기 위해 지워서도 안 된다. 선의 무게 폭 대조상의 변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6. 블라인드 컨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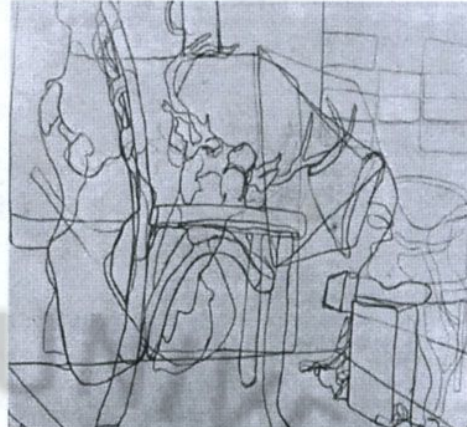


그림 7. 연속선 드로잉

가. 연속선 드로잉

연속선 드로잉은 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없이 이어진다. 투명기법에 의한 것으로, 선은 외곽선 뿐만 아니라 내부 형태까지 그린다. 화지를 가득 채우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선의 무게를 다양화해야 한다.

나. 블라인드 컨투어

블라인드 컨투어는 눈을 대상물에 고정시키고 연속적인 선으로 그린 것으로 형태를 부분부분 천천히 면밀하게 다룬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를 선택하고 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는 대상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선의 무게를 변화있게 사용해야 한다. 무의미한 선을 그려서는 안된다.

다. 느린 컨투어

느린 컨투어는 식물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형태의 외곽선에서 시작하고, 그 대상을 실제로 만지는 것으로 상상하면서 계속 따라가야 한다. 화지를 보지 말고, 한 형태를 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끊어진 선 위에 이어붙일때 잠깐 화지를 볼 것이며 선의 압력과 폭의 변조로 공간성을 창출하도록 한다. 비율설정과 세부묘사에 효과적이다.

라. 과장된 컨투어

과장된 컨투어는 왜곡된 형태를 역이용하는 기법으로, 화지를 적신 다음 펜과 잉크로 모델의 발부터 그리기 시작하며 컨투어 라인으로 하고 화지의 중간 쯤에 이를 때 인물의 크기를 급격하게 줄여서 남은 공간에 억지로 그려넣으면 결과는 재미의 시점을 지니게 된다.

다. 빠른 키투어

빠른 키투어는 속도를 빨리하면서도 단 하나의 예리한 선으로 그어야 하며 선의 움직임이 보다 유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한다. 대상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착하도록 한다. 자화상에도 좋다.

바. 크로스 키투어

크로스 키투어는 수평적 선이나 크로스(교차) 키투어를 묘사하는 선이다. 대상물의 입체화에 중점을 둔다. 주름진 천을 묘사할 때 도구를 화지에서 떼지 말고 대상물의 크로스 키투어를 잘 관찰하고 물결 모양의 형태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명암의 변화를 표출할 수 있다. 인물상의 교차하는 복잡한 공간적 변화의 관찰안을 길러준다 수평으로 짜여진 선의 망 속에 형태라는 덩어리를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본다.

사. 톤 키투어

톤 키투어는 키투어 기법에 명암이나 톤을 더해 보고, 명암을 주어 초점을 만든다.

이와 같이 키투어 드로잉 표현 방법은 선의 형식을 통하여 그 전개 방법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키투어 드로잉은 부분 묘사적이고,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므로, 다양한 키투어 기법을 적용하여 드로잉에 적용시키면 더 풍부한 드로잉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작시간 및 특성에 의한 분류

제작시간 및 특성에 의한 분류로는 크로키, 스케치·데생, 정밀묘사가 있다.

① 크로키

크로키는 초안 밑그림 스케치와 비슷한 의미 인물화, 동물화 등과 같이 움직임과 관계있는 소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 형태의 특징을 포착하여 짧은 시간 안에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눈의 훈련과 손의 훈련이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감정과 감동이 나타나야 한다.

② 스케치·데생

스케치는 회화기법의 하나로 크로키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생화 약도 초벌 그림 즉시적 데생의 일종으로 개략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관념적으로 암기해서 그리는 경우 단색으로 대상의 형태나 특징을 선묘나 단순한 명암을 그려넣기도 하고 수채물감을 칠해서 담채하기도 한다. 재료 소재면에서 자유로우며 제약이 많지 않다. 사물을 위한 습작이나 밑그림 뿐만 아니라, 완성작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등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스케치와 데생의 차이점으로는 스케치는 사생화이고, 데생은 ‘도화 도면에 그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케치는 인물, 동물, 정물 스케치가 있고, 데생은 석고, 인체 기물 데생이 있다.

③ 정밀묘사

정밀묘사는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 이지적이며 객관적이고 카메라와 경쟁하듯 묘사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한 것 포토 리얼리즘, 수퍼리얼리즘(superrealism)²⁴⁾이라고 하고, 사진을 찍은 후 현상되어진 사진을 묘사한다.

이와 같이 드로잉의 기본 기법들을 살펴보았는데, 드로잉의 기법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지만, 그 기본 틀과 구조는 같은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드로잉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드로잉 기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을 위한 드로잉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가르쳐서 우리 미술교육에 있어서 드로잉 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4) 수퍼리얼리즘(superrealism) :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또는 쉬르레알리즘(프랑스어:surrealisme)은 미래파, 다다이즘에 이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진 문예사조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1924년의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처음 확립되어, “인간의 상상에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지로 삼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의 영향이 강하다. 자유로운 상상력으로서 지성을 초월한 꿈이나 잠재의식의 세계를 해방하는 것으로서 초현실적인 미를 창조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라공, 콕토, 달리, 피카소 등이 있다.

2. 단계적 드로잉 학습방법 연구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설이다. 인간의 지각이 온통 착오로 가득하다는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는 일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이제까지 지속되어 왔다.”²⁵⁾ 시지각은 미술교육에서 배제된 채 훈련된 기술에 의해 그림을 배우고 있다. 이는 혼자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미술에 대한 거부반응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보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시지각적 기능을 훈련시켜 드로잉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훈련은 초보자에게 인지상의 변화를 일으켜 지각의 기본법을 익혀나가야 한다. 그 기본 지각법을 꿰뚫어보기라고 이름짓고 이를 단계적 드로잉 학습 방법의 연구의 지표로 삼을 것이다.

꿰뚫어보기의 기본전략으로서, 중요한 다섯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경계를 파악한다. 하나의 사물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고 있는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문제의 여백을 파악한다. 네가티브 드로잉의 개념을 생각해본다. 문제의 대상이 되는 물체, 또는 주위의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 공간들의 경계는 각각의 대상이 되는 물체에 의해 나누어 있는데 그 공간들은 각 물체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셋째, 문제의 여러 관계와 비례들을 파악한다. 서로,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넷째, 빛과 그림자를 파악한다. 빛에 의해 드러나는 부분과 그림자 속에 가려진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다섯째, 문제의 형태를 파악한다. 문제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 사물의 본질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²⁶⁾

역설적이지만 이 질문들은 예리하게 보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혹은 다섯가지로 이루어진 일련의 기본법들을 구성한다. 이러

25) 베티 에드워즈(2006),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기」, 비즈앤비즈편집부 역(2006), 비즈앤비즈, p.140.

26) 베티 에드워즈(2006), 「상계서」, p.139.

한 이해를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기를 배움으로써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의 지각이 개념적 관념으로 가득차 있어서 순수한 시각을 지니기 어려운 것처럼 지각의 방법에 대한 교육은 미술교육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읽기 교육처럼 엄격하게 체계화된 교육 방법으로 보는 법을 교육받는 어린 학생은 전혀 없다. 인간의 시지각은 너무나 복잡적이다. 인간의 시지각 능력이 선천적으로 놀랄만하다면, 다른 식으로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훈련시키면 무한히 많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문적 미술 교육에서는 고유한 교수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공교육 미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드로잉 교수법을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위의 꿰뚫어보기에 따른 다섯가지의 일련의 기본법들을 가지고, 보는 법칙을 사용하여 단계적 드로잉 학습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기를 배움으로써 보는 것을 배우고 효과적인 기초 드로잉 지도 방안을 구현하여 중학교 미술의 기초 드로잉의 연구에 한 단계 더 다가갈 것이다.

1) 느릿느릿 그리기

왼쪽 두뇌를 지루하게 하여 얼마 동안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한다. 따라서 매우 천천히 그릴 것이다. 컨투어 드로잉 중 블라인드 컨투어로 그리는 과정을 말한다.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책상에 고정시켜 놓고, 자명종을 10분으로 맞추어 놓고, 얼굴은 종이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 종이를 보지 않고, 다른 쪽 손의 부분을 그리기 시작한다.

2) 여백 그리기

대상을 감싸고 있는 공간들(여백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술에서 이러한 여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리기를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공간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공간을 하나의 형태로 본다. 여백지각은 두 번째 기본법에 해당한다. 공간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 경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백을 지각할 때, 공간 사이를

있는 경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실재하는 사실에 대한 왼쪽 두뇌 지각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

블라인드 컨투어와는 달리 자신이 그리는 그림을 지켜봄으로써 그림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그리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보면서 한 쪽 눈을 살짝 감고 바라보면, 이차원적이니 시야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엔 적어도 하나 이상 닫혀진 공간이 있는 손의 자세를 만들어주고, 공간들 중에 하나에 시선을 맞춰가면서 형태의 경계를 그리기 시작한다. 완화된 컨투어 드로잉 기법을 적용해준다.

“때로는 공간을 그려 놓고 대상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실제로는 더 쉽다.”²⁷⁾ 이 말은 공간과 여백이 차지하는 존재 여부를 그림에서 확인시켜준다.

“구도의 주된 요소는 그림의 형태(사람이나 사물), 여백공간(빈 부분), 틀(체제, 그림이 그려질 면의 가장자리 윤곽을 이루는 상대적인 길이와 폭)이다.”²⁸⁾

3) 관측법

세 번째 기술인 관계를 어떻게 보고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원근법과 비례적으로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에서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비례와 원근법으로 보는 기량은 가장자리 윤곽, 공간, 관계, 명암 등이 시각적 논리로 결합되도록 만들어 준다.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지는 우리 주변 세계를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비례와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간에 대한 착시로 그림을 그리는 힘을 길러 줄 것이다.

관측은 기본적인 그림그리기 기술로 충분하다. 각도 관측은 수평선, 수직선에 비교하여 관측된다. 한 눈을 감는 목적은 두 눈으로 보는 3차원 영상이 아닌 2차원 영상만을 보는 것이다. 팔꿈치를 고정시키는 목적은 반드시 단일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팔꿈치를 움직이면 관찰 단위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각도를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선들이 변하지 않는 선이기 때문이

27) 베티 에드워즈(2006), 「상계서」, p.173.

28) 베티 에드워즈(2000), 「오른쪽 두뇌로 그림그리기」, 강은엽 역(2000), 서울나무숲, p.146.

다. 연필을 수직, 수평으로 잡고 연필의 가장자리와 각도를 비교함으로써 각도를 관찰할 수 있다. 연필은 사용하기 쉽고 그림에 방해되지 않는다. 각도를 수직으로 측정하지 말고 수직, 수평선과 비교할 때 각도가 형성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이런 시각적 형상을 그리는 것이다. 특정한 각을 보는 기준을 수직, 수평선 중에 더 작은 각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그림은 모두 비례와 관계가 있다. 사실적인 그림은 정확한 비례대로 그려져야 한다. 특히 인물을 그릴 때 이것은 더욱 강조가 된다. 화가들이 두개골을 도식으로 나타낼 때 타원형의 블랭크를 그린다. 블랭크의 주변을 둘러싼 여백을 그리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다. 눈높이에서 턱까지의 길이a와 눈높이에서 두개골 꼭대기까지의 길이b는 같다. 옆모습을 그릴 때 옆머리의 폭을 정확하게 지각하여야 한다. 눈높이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와 눈높이 선에서 눈 끝으로부터 귀 뒤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다.

4) 명암법

빛의 논리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명암법은 분위기와 색조를 만들어내고, 사물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즉 마치 입체적인 대상처럼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준다. 명암의 처리는 화가의 가장 신비로운 비법 중의 하나이다. 이 신비로운 비법을 쓸려면, 화가는 관람자의 상상 반응을 일으키고 조정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5) 형태로서 문제 지각하기(제스처 드로잉)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즉 지각 및 시각화와 관련된 단어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문제 그 자체에 정신을 집중한다. 당신은 마치 그것을 그리고자 했던 것처럼 전체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제스처 드로잉의 목적은 소재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포착하는 데 있다. 목탄처럼 부드러운 재료나 동양화의 붓같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적합하다.”²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로잉의 기초로서 다루어져 할 대상을 새롭게 보는

29) 박운호(2008), “미술과 수업의 창의적인 드로잉 지도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방법, 윤곽선과 공간, 여백, 구도, 명암, 원근과 비례,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드로잉 영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자, 습득하고 넘어가야 할 기초적 과제이다. 학생들이 기초 드로잉을 쉽게 습득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드로잉 학습 프로그램 개발

기초 드로잉 교육의 체계적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드로잉 지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로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감각의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매체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드로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드로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좌·우반구의 인지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두뇌의 인지 기능을 기초로 한 관찰 표현으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로 순수한 시각으로 드로잉할 수 있는 지도에 그 주안점을 둔다.

학습 프로그램에 있어 수업의 도입 단계에는 긴장 완화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표현의 단계에서는 오른쪽 두뇌를 활용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1) 드로잉 지도 과정

다섯가지 기본 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도 계획을 잡아보면, 음악을 듣고 선을 그려봄으로써, 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컨투어 드로잉으로 부분을 보고, 여백과 명암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보고 그리는 방법을 쓰고, 관측법으로 정확한 원근과 비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스처 드로잉으로 전체를 보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결과로서 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흥미를 이끌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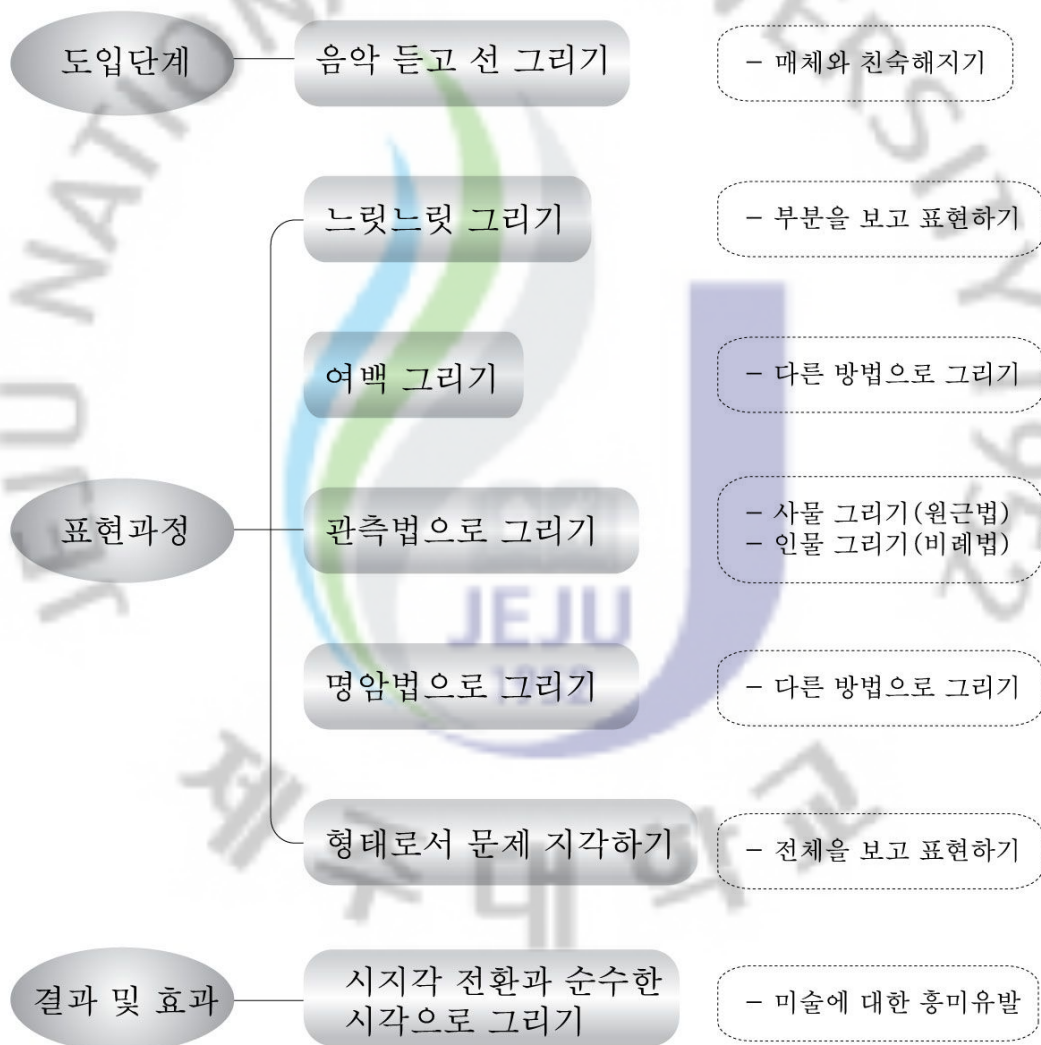


그림 8. 드로잉 지도 과정

2) 드로잉 지도 계획안

총 8차시로 나누어 도입단계, 전개단계, 결론단계에 맞추어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과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5가지 기본 지각법에 의해서 지도 계획을 구성하였다.

표 10. 드로잉 지도 계획안

	차시	시간	활동방안		준비물	
					교사	학생
도입	1/8	45분	드로잉을 위한 준비단계	음악 듣고 선 그리기	긴장완화 프로그램 (음악)	화지, 여러 가지 재료
전개	2/8	45분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느릿느릿 그리기	예시작품	화지, 여러 가지 재료
	3/8	45분		여백 그리기	예시작품	화지, 여러 가지 재료
	4/8	45분		관측법으로 그리기 I (원근법-사물)	주변의 풍경	화지, 연필
	5/8	45분		관측법으로 그리기 II (비례법-인물)	화가작품 (작품 모사)	화지, 연필
	6/8	45분		명암법으로 그리기	예시작품	화지, 여러 가지 재료
	7/8	45분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형태로서 문제 지각하기	예시작품
정리	8/8	45분	시지각 전환과 순수한시각으로 그리기	미술에 대한 흥미 유발	학생작품	종이, 연필

〈표 10〉에서처럼, 드로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음악을 듣고 선을 그려봄으로써 선에 대한 두려움과 드로잉에 대한 흥미유발을 시킨다. 또한 전개 단계에서는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방안으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과 여백으로 그리기, 원근법과 비례법을 선택하였고,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암법으로 그리기와 제스처 드로잉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시지각 전화와 순수한 시각으로 그리기 위한 이제까지의 드로잉 방안을 정리해주고, 다른 미술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서 미술에 대한 흥미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드로잉 영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준다.

4. 드로잉 학습지도 모형

인간의 시지각은 정말로 너무 복잡적이다. 인간의 시지각 능력에 대해, 인간이 외관상 아무런 노력없이 순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지각 능력은 현재 절대적으로 기계의 능력을 초월해 있다. 그러면, 만일 인간의 시지각 능력이 이미 선천적으로 그렇게 놀랄 만하다면, ‘다른 식으로’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곧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각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그림을 보다 쉽게 그릴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각의 기술들이 창조적인 사고 방법을 향상시켜 준다는 나의 확신에 덧붙여 잠자고 있는 우뇌를 시지각적 기능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며 다행히도 그러한 훈련은 다양한 교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제 그 기술들을 습득해 낼 수 있는 5가지 기본 지각법에 의해 지도안을 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각된 대상에 대해 보기에 다섯가지 특별한 기법이 필요함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시키는 능력-물체나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는 능력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지각의 다섯 가지 발견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보기 그리기 기술을 창조적 과정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틀에 박힌 드로잉 교육은 그리기의 총체적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인체소묘’, ‘풍경소묘’, ‘인물소묘’라고 불리는 미술 교육 과정을 습득하면 주제가 바뀌면 그림 그리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게 되고 미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현행 교육 방법에서는 미술에 대한 기본기마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나 형상, 풍경, 정물을 그리는 것은 모두 같은 종류의 시각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몇 명 안 될 것이다. 우리 미술 교육의 현 시점을 기초부터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가지 기본법들을 다 익히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로 통합되고 그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을 중학교 기초 드로잉 교육에 접목시켜 보다 쉽고 다양하게 드로잉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고 이를 적용시켜 보았다.

다섯가지 기본 시각법에 의한 학습 지도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음악 듣고 선 그리기

도입 단계에서 드로잉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음악 듣고 선 그리기를 선택하였다. 음악은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도 갖게 해 준다. 그림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조건이 되는 것은 흰 종이와 선을 그릴 때의 두려움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드로잉의 도입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업계획

가. 학습제재 : 그림 그리는 활동과 친숙해지기 및 선긋기 연습

나. 학습목표 : 자신있게 종이 위에 선을 그릴 수 있음
그림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다. 활동이유 : 긴장이 완화된 속에서 선 그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순수한 시각을 갖도록 하여, 시각적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학습활동

가. 준비물 : 초보자에게는 볼펜, 2B, 연필, 색연필, 붓 등이 좋다.

화지의 크기는 선을 그으려면 손목 뿐 아니라 , 어깨까지의 운동이 활발해야 하므로 큰 것이 좋다.

나. 시간 : 3~5분 정도의 시간으로 나눠서 시작하고 차츰 시간을 늘린다.

다. 표현대상 :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선을 떠올리며 마음대로 그리기
라. 학습과정

- 먼저 선을 긋은 요령을 말해준다.
- 미술에서 선긋기에 필요한 선 긋기 동작을 보여주고 손목을 이용한 선긋기의 중요성과 힘의 강약에 의한 톤의 변화를 보여주고,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따라해 보도록 시킨다.

(3) 효과

흰색의 종이와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며, 심리적인 부담감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

2) 느릿느릿 그리기(순수 윤곽 소묘법,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전개 단계에서 첫 번째 지각법으로, 부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느릿느릿 그리기를 선택하였다. 부분을 보는 방법 중에 자신의 눈을 믿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하늘의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어릴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배운 대로 그리는 관념적 사고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드로잉에 있어서 첫 번째 고쳐야 할 지각법이다.

(1) 수업계획

가. 학습제재 : 부분 관찰 표현에 의한 기초 드로잉

나. 학습목표 : 표현 대상을 보는 방법의 습득

오른쪽 두뇌 활용에 대한 표현 효과 실험

다. 활동이유 : 부분 부분을 세밀하게 보면서, 부분으로서 형태를 보는 방법을

익힌다.

(2) 학습활동

가. 준비물 : 끝이 날카로운 도구, 종이

나. 시간 : 10분 정도로 하여 집중력을 조절한다.

다. 표현대상 : 변화가 있는 윤곽선을 가진 정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자신의 손이나 친구의 얼굴 그리기

라. 학습과정

- 그리는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눈의 움직임이 그려나가는 속도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대상의 외형 선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선이 안으로 향하면 그대로 끝까지 쫓아서 그린다.
- 대상물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곳만을 이 선으로 나타낸다.
- 내부의 형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면이나 무의미한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
- 이미 그어진 선 위에 덧그리지 말아야 한다.

(3) 효과

윤곽선의 복잡성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복잡한 인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시각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느릿느릿 그리기는 지각능력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고, 순수한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3) 여백(공간) 그리기

전개 단계에서, 두 번째 지각법으로, 다른 각도에서 대상을 관찰하여 그리는 방법이다.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대상이 여백이 갖는 또다른 형태를 통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1) 수업계획

가. 학습제재 : 여백(공간) 그리기

나. 학습목표 : 표현 대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습득

오른쪽 두뇌에 의한 표현 효과

다. 활동이유 : 미술에서 이러한 여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리기를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공간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시각정보는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간의 형태에 대한 사전에 존재하는 기억된 상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2) 학습활동

가. 준비물 : 두꺼운 종이, 연필, 볼펜, 만년필 등

나. 시간 : 30분~1시간(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름)

다. 표현대상 : 자연물 그리기

라. 학습과정

- 형의 안쪽과 바깥쪽 둘 다를 보기 위한 학습이므로 4절지, 5절지 크기의 종이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 안쪽 부분이 하나의 형태로 보일 때까지 뚫어지게 바라보도록 한다.
- 의자의 공간을 하나하나 그린다. 기본 단위에서 작업을 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의 형태는 퍼즐처럼 어울리게 될 것이다. '가장자리가 각을 이루고 있으면 수직선에 비해 이 각은 얼마나 되는가?' 수직 수평선 중에서 더 작은 각이 되는 수직 수평선을 선택해서 비교한다.
- 여백을 그릴 때 더 작은 여백 먼저 그려나간다.

(3) 효과

여백 공간은 어려운 그림 그리는 작업을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 원근법이나 복잡한 형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이지 않는 형태의 영역은 여백 공간을 이용하여 쉽게 그릴 수 있다.

여백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그림을 통합시키고 구도를 강화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지각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여백과 형태의 경계선을 보면서 그려 나가며 완성한다.

형태가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단순히 눈으로 보고 관찰한 대로 그릴 수 있다. 지각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식적인 형태로 대상을 보지 않고 실제 대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 관측법으로 그리기 I,II

전개 단계에서, 세 번째 지각법으로, 원근법과 비례법으로 사물, 풍경, 인물을 사실적으로 관찰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어려운 원근법과 비례법이 아닌 쉽게 관찰하여 그릴 수 있는 기초적인 관측법을 가르키고 그에 따른 응용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정확한 원근과 비례에 따라 그릴 수 있게 돕는다.

(1) 수업계획

가. 학습제재 : 관측법으로 그리기

나. 학습목표 :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

다. 활동이유 : 원근법과 비례적으로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2) 학습활동

가. 준비물 : 연필, 펜

나. 시간 : 30분

다. 표현대상 : 교실의 구석, 창문을 통해 본 풍경, 긴 복도, 거리의 모퉁이
화가의 옆 얼굴 초상화 모사(풍경, 정물, 인물)

라. 학습과정

- 좋아하는 구도를 찾으면 기본 단위를 선택한다.
- 기본 단위는 중간 정도의 크기로 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는 모양을 선택한다.
- 십자선을 그리고 연필을 이용해 한쪽 눈을 감고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비율을 관찰한다.

- 각도를 수평선과 수직선과 비교하되 더 작은 각이 되는 지점이 수평선으로 관찰할지 수직선으로 관찰할지 선택해서 관찰한다.
- 수평선에 대한 이 그림자의 각도는 얼마인가? 창문의 폭에 대한 광선은 얼마나 폭이 넓은가? 를 엄두에 두고 관찰하여 그린다.

(4) 효과

인물은 그릴 때도 관측선은 매우 중요하다.
약식 원근법에 대한 사용법을 안다.

5) 명암법으로 그리기

전개 단계에서, 네 번째 지각법으로, 빛과 그림자에 의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빛과 그림자를 지각하는 방법으로 배우고 표현해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1) 수업계획

- 가. 학습제재 : 명암법으로 그리기
- 나. 학습목표 : 명암을 보는 방법과 적용법 익히기
- 다. 활동이유 : 빛의 논리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명암법은 분위기를 색조를 만들어내고, 사물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즉 마치 입체적인 대상처럼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준다. 명암의 처리는 화가의 가장 신비로운 비법 중의 하나이다.

(2) 학습활동

- 가. 준비물 : 흑연, 두꺼운 종이, 지우개, 칼
- 나. 시간 : 1시간
- 다. 표현대상 : 인물
- 라. 학습과정
 - 흑연을 종이에 문질러 어두운 은회색 색을 입힌다.

- 십자선을 긋고 기본 단위를 정한다.
- 인물의 가장 밝은 부분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 지우개를 살짝 깎아서 빛의 밝기가 큰 쪽부터 지우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림을 손질한다.
- 음영을 볼 때 뒤로 물러나서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초점을 흐린 다음, 영상이 도두라지게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본다.
- 아직 그려지지 않는 부분을 그리려고 노력하자.
- 빛과 그림자의 정확한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림자의 각도를 수직 수평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표현한다.

(4) 효과

명암을 보는 방법과 그림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고, 그림에 자신감을 갖는다.

6) 형태로서 문제 지각하기

전개 단계에서, 다섯번째 지각법으로,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 전체를 보는 방법을 익혀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드로잉은 어렵고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1) 수업계획

가. 학습제재 : 체스처 드로잉으로 그리기

나. 학습목표 : 전체를 빨리 보는 방법 익히기

다. 활동이유 : 지각 및 시각화와 관련된 단어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문제 그 자체에 정신을 집중한다. 부분을 보는 방법과 반대인 전체를 보는 방법을 통해 그림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2) 학습활동

가. 준비물 : 목탄, 두꺼운 종이

나. 시간 : 3~10분(시간을 늘려나간다.)

다. 표현대상 : 동작이 들어있는 인물

라. 학습과정

- 눈으로 대상의 배치, 형태, 비율, 부분들 사이의 관계, 공간 내의 배열 등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재빨리 관찰하면서 손은 눈의 그러한 동작을 따른다.

(4) 효과

관찰의 내용과 드로잉 일치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하며 집중도를 얻기 위한 예비과정이다.

7) 결과 및 효과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서는, 시지각 전환과 순수한 시각으로 바꾸는 이제까지의 방법을 총 정리하여 상기시켜 줌으로써 다른 미술 영역에 대한 흥미 유지와 드로잉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리시켜주고, 드로잉 과목의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1)~7)에서처럼, 기본적인 다섯가지 지각법으로 창조적인 사고와 순수한 시각을 기르고 기초 드로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드로잉 학습 지도 모형을 제시해보았다. 이는 앞으로의 미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초 드로잉 방안으로 어떻게 중학교 미술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계적 지도 방안으로 그리기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미술 영역에서보다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표현능력과 조형적 관찰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 제7차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학습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11. 드로잉 학습 지도안 제시

과 목	미 술	학 년	1, 2학년
교 재	미술 교과서	연구자	김 신 혜
단 원	드로잉 활용한 미술지도		
<p>I. 단원의 연구</p> <p>1. 단원 설정의 이유 드로잉 영역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술 교육에서 드로잉 교육의 부재가 현존하는 시점에서 기초 드로잉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실기지도의 어려움을 없애고,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롭고 다양한 창의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p> <p>2.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드로잉적 표현과 창의적인 미술 활동을 하고, 이제까지의 관찰 방법과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표현활동을 위한 드로잉 교육을 하는데 있다.</p> <p>3. 단원의 학습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물을 보는 방법을 인식한다. 2) 우뇌를 이용한 인식 방법을 인식한다. 3) 창의적인 드로잉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다. 4) 단계적 드로잉 방법을 습득한다. <p>4. 지도상의 유의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 드로잉 기법을 잘 이해시키고, 학생들에게 단계적 드로잉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한다. 2) 성실히 관찰함을 통하여 학생들이 쉽고, 창의적으로 표현되도록 유도한다. 3) 드로잉 기법을 잘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하여, 드로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5. 평가 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의 표현에 드로잉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2) 자신의 그림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하고, 그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3) 단계적 드로잉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효과적인 드로잉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6. 관련 단위

드로잉 활용한 미술 지도

II. 단위지도 계획

1. 단위 : 드로잉 활용한 미술 지도

2. 지도 계획

차시	소단원	주요학습 내용 및 활동
1/8	드로잉 활용한 미술 지도	음악 듣고 선 그리기
2/8		느릿느릿그리기(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3/8		여백 그리기
4/8		관측법으로 그리기 I(원근법-사물)
5/8		관측법으로 그리기 II(비례-인물)
6/8		명암법으로 그리기
7/8		형태로서 문제 지각하기(체스처 드로잉)
8/8		결과 및 효과 (시지각 전환과 순수한 시각으로 그리기)

〈표 11〉의 드로잉 학습 지도안 예시처럼, 중학교 1, 2학년으로 나누어 드로잉 지도를 하여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지도방법을 바탕으로 한 내용구성이나 예시작품이 필요하다. 또한 드로잉 방법에 대한 그림 예시를 넣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A.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1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매체와 친숙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음악을 듣고 느낌과 감정을 선으로 표현하면서 선에 대한 두려움과 선을 긋는 요령을 익히고, 선의 특징을 익히는 단계이다.

표 12. 1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음악 듣고 선 그리기	차시	7/1		
학습목표 1.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을 선과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자신 있게 종이 위에 선을 그릴 수 있다. 3. 선을 긋는 요령을 알고, 선 그리기와 친숙해질 수 있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 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감정, 선)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감정) PPT-3 (동기유발-선은 무엇인가?)
전개	▷드로잉적 요소에 대한 이해	▷선의 다양한 표현 설명	▷설명듣기	35	PPT-4,5,6 (선과 관련된 드로잉적 그림의 예) 인터넷동영상 (음악듣기)
	▷드로잉의 예	▷작품 설명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음악 듣기	▷음악을 들려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상하며 음악듣기		
	▷실습지 배부	▷실습지작성예시 PPT 활용	▷작성 예 보기		
	▷실습지 작성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실습지 작성하기		
▷선 그리기	▷표현활동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8 (형성평가)

▶ 학습 목표

A.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1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1. 여러가지 느낌과 감정을 선과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자신있게 종이 위에 선을 그릴 수 있다.
3. 선을 긋는 요령을 알고, 선 그리기와 친숙해질 수 있다.

▶ 우리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즐거움, 따뜻함, 차가움
사랑, 분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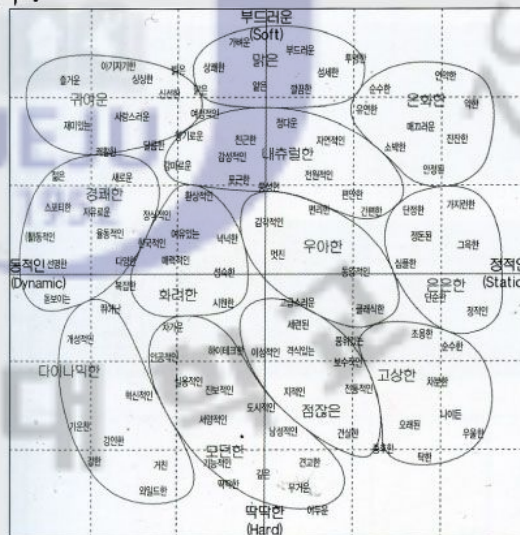


그림 9. 감정의 종류

▶ 동기유발의 예-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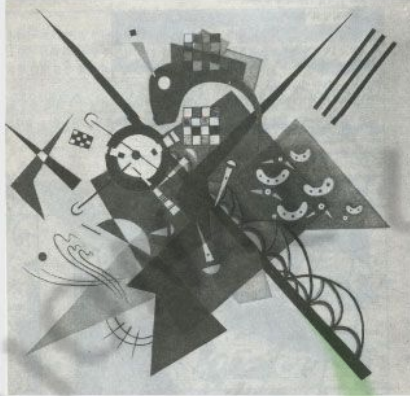


그림 10. 칸딘스키의 백색 위에 #2

점을 연결하여 보면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이 됩니다. 수직선은 엄숙하며 긴장감이 있고, 수평선은 평온한 느낌을 주고, 대각선은 방향을 나타내며 수직, 수평선보다 운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 선과 관련된 드로잉적 그림의 예

선이 주는 구조적 유사성은,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통된 직관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림 11. 고희의 삼나무 숲



그림 12. 마르틴 존슨 헤드의 흐린 하늘

-수평선에 나타난 평화
수평선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기쁨을 나타낸 그림
형태 속에서 가볍고 완만하며,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 선과 관련된 드로잉적 그림의 예



그림 13. 고야의 다가울 슬플 예감

- '우울' 을 표현한 세 가지 요소
우울의 세 가지 주된 방법은 하강하는 선, 낮게 깔린 수평 형태, 빛살무늬로 표현하였다.



그림 14. 렘브란트의 광대

- 인간 에너지를 나타내는 선
두가지 기본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폭발하는 영상이거나 상승하는 삼각 형태이다.

▶ 실습지 작성 예시



그림 15. 학생작품(중1), 종이에 잉크

느낌, 감정 : 운동감, 상승, 울동
사용할 재료 : 연필
표현 방법 : 스케치
표현하고 싶은 선의 종류
곡선, 수직선, 대각선
지그재그 선, 꼬불꼬불한 선,
광선, 부드러운 선, 굵은 선,
짧은 선, 긴 선, 움직이는 선,
나선형 선 등

수업지도계획안에 따라 도입, 전개의 PPT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지도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내용면에서 동기유발을 하고, 선과 관련된 드로잉적 그림의 예시를 통해 선의 느낌에 따라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지와 선 하나에도 자신의 개성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음악을 듣고 실습지 작성을 해서 선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3. 실습지 작성 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선으로 마음껏 표현해보자!!	
	학년 반 번 이름
느낌, 감정	
사용할 재료	
표현 방법	
표현하고 싶은 선의 종류	
선 그리기	

B.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2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부분을 보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드로잉의 기본 분류 중에 컨투어 드로잉을 적용시켜 변화가 있는 정물이나 자신의 손, 친구의 얼굴을 그려봄으로써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르고 시각적 전환을 익히고 지각능력의 변화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도안을 계획해보았다.

표 14. 2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느릿느릿 그리기	차시	2/7		
<p>학습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3. 주의사항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부분과 전체의 관계)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 (동기유발의 예시)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 이해 ▷컨투어 드로잉의 주의사항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 설명 ▷주의사항 설명	▷설명듣기 ▷유심히 듣기	15	PPT-3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
전개	▷자신의 손이나 친구의 얼굴 그리기	▷수준별로 그릴 것을 제시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상하며 음악듣기	10	PPT-4,5 (주의사항1.2) PPT-6 (컨투어 드로잉의 예)
				10	-학생작품 제시 (실물 화상기)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7 (형성평가)

▶ 학습 목표

B.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2차시 수업 지도 PPT

1.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3. 주의사항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동기유발의 예 - 이것은 부분일까? 전체일까?

부분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전체를 먼저 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그림 시간이 고통스러운 학생들은 이 그림을 뚫어져라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6. 폴로이드의 블라인드 컨투어에 의한 정물

▶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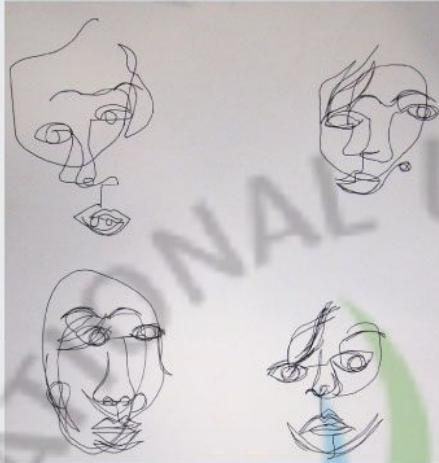


그림 17. 한지아 학생 작품

- 친구의 모습 그리기

- (1) 화면에 연필을 대고 눈은 그리는 대상을 따라 천천히 따라가며 그려 보게 한다.
- (2) 선을 긋는 손의 움직임과 눈의 움직임이 일치하게 한다.
- (3) 펜의 색이나 종류를 바꾸어 가며 흥미로운 표현이 되어 가도록 하고 눈의 인식과 손놀림의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감을 자신의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4) 45분 수업 동안 4~5점의 표현이 가능하며 모델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손을 그려보게 하거나 난이도를 차츰 높여 4명씩 마주보게 하고, 대상을 바꾸어 가며 그리게 할 수도 있다.

▶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주의사항 1

1. 초보 단계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연필이나 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눈을 대상에서 떼지 말고, 화지를 쳐다보지 말 것
3. 연필 끝이 대상물과 붙어 있다고 상상하고, 눈이 손을 앞질러 가서도 안 된다.

▶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주의사항 2

4. 대상물의 면에서 변화가 있는 곳만을 이 선을 사용하되, 무의미한 선을 긋지 말고 선 위에 덧긋지 말고 선을 지워서도 안 된다.
5. 컨투어 라인은 단 하나의 날카로운 선임을 잊지 말자
6. 선을 변화 있게 사용하여 입체감과 무게 등을 추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예



그림 18. 두 명의 학생이 그린 손의 부분

그림을 그릴 때,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부분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분으로서 전체로 그리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과정으로서 친구의 모습 그리기의 과정을 설명하고,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의 주의사항을 짚어준다.

C.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3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 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백 그리기를 통해 여백으로 형태를 지각 하는 반대 방법으로 형태를 보고 그려서 지각능력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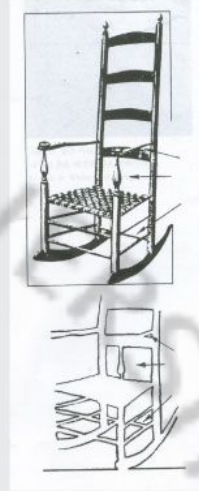
표 15. 3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여백그리기	차시	3/7		
학습목표 1. 여백 공간을 이용하여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2. 구도를 강화시키고,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 간	유의점 및 학습 자료
		교사	학생		
도 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시각의 전환 유도)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동기유발의 예시-시각 전환의 예시)
전 개	▷여백 그리기에 대한 이해	▷여백 그리기의 표현 설명	▷설명듣기	15	PPT-3 (여백 그리기의 예) PPT-4 (주의사항)
	▷다른 방법의 형태보기의 예 (작은각-큰각, 수직선과 수평선의 비교 방법)	▷작품 설명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자연물 그리기	▷사물을 그릴 때 주의사항 설명	▷주의사항 듣고 생각하기	10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사물 그리기	10	-학생작품 제시 (실물화상기)
정 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5 (형성평가)

▶ 학습 목표

C.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3차시 수업지도 PPT

1. 여백 공간을 이용하여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2. 구도를 강화시키고,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여백을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은?

- 여백은 공간이자 다른 의미의 또다른 형태다.

형태를 여백으로 사용한다.
다음의 네 곳에 초점을 맞춘다.

- a. 위의 공간
- b. 아래
- c. 또 다른 공간
- d. 사이의 공간



그림 19. 의자의 여백 그리기

▶ 여백 그리기의 과정



그림 20. 손의 공간 설명

1. 종이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2. 연필 잡는 손과 다른 손을 내밀고, 한 쪽 눈을 감고 이차원적인 시야를 만들고 적어도 하나의 닫혀진 공간이 있는 상태로 손을 만들고 닫힌 형태에 눈을 고정시키고 형태의 경계를 그리기 시작한다.
3. 작은 여백부터 큰 여백 순으로 그려나간다.
4. 수직, 수평과 비교하여 그려 나간다.
5. 대상보다는 대상 그 주변의 모양이 그리기 쉽다.
6. 퍼즐처럼 맞춰나간다.

▶ 여백 그리기의 주의사항

1. 자신이 보는 여백이나 공간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
2. 수직, 수평선으로 각을 비교하면서 그린다.
3. 비례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린다.

▶ 여백 그리기의 예



그림 21. 나무 그리기 학생작품

- 나뭇가지를 단순한 선과 여백을 살려서 표현하였다.



그림 22. 자화상 학생작품

- 백묘법으로 그린 자화상 차분하고 냉정한 느낌을 준다.



그림 23. 윈슬로우 호머의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

- 버들가지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 여백 공간을 사용한 방법을 관찰해보자

여백을 형태로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여백 그리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백 그리기의 예시를 통해 형태가 어려운 자연물을 그림으로써 다르게 보는 방법과 다르게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자 하였다. 자연물이 어려우면 좀 더 단순한 물체의 그리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D.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4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공간이나 사물을 그릴 때 원근법에 의해서 그리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공간이나 사물의 형태를 사실과 가깝게 그려 낼 수 있다.

표 16. 4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관측법으로 그리기 I	차시	4/7		
학습목표 1. 원근법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림에 나타난 원근법을 판단해 낼 수 있다. 2. 약식 원근법을 배우고, 그림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원근법-사물)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학습목표 PPT-2 (동기유발)
전개	▷원근법에 대한 이해(투시, 약식 원근법) ▷관측하는 방법 (중심선, 수직, 수평을 이용하여 관측하는 방법)	▷원근법의 표현 설명	▷설명듣기	35	PPT-3 (선 원근법의 종류 1) PPT-4 (선 원근법의 종류 2)
	▷공간이나 사물 그리기(풍경, 정물)	▷공간, 사물을 그릴 때 주의사항 설명	▷주의사항 듣고 생각하기		PPT-5 (약식원근법의 과정)
		▷순회 지도 및 공간지도	▷풍경, 정물 그리기		PPT-6 (주의사항) -학생작품 제시 (실물화상기)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7 (형성평가)

▶ 학습 목표

D.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4차시 수업 지도 PPT

1. 원근법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림에 나타난 원근법을 판단해낼 수 있다.
2. 약식원근법을 배우고, 그림에 적용시킬 수 있다.

▶ 그림에서 원근법을 볼 수 있는가?

“그는 비례로부터 원근법을 완전하게 끄집어 내고 있어”

“그녀는 원근법을 완전히 상실했어”

관측은 드로잉 초보자에게도 다른 구성 기술과 함께 이용될 때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24. 고흐의 빈센트의 방

▶ 선 원근법의 종류



그림 25. 호크니의 헨리 잭트자일러와 크리스토퍼스코트

일점 원근법

화면에 대각선으로 놓인 평행선들이 수평선 상의 한 점에서 만나는 기법이다. 이 때 만난 점이 소실점이다. 바닥의 선들, 긴 의자의 각도, 테이블의 엽구리 등 모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 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림 26. 러스차의 월드지

이점 원근법

수평선 상의 두개의 소실점을 갖는다. 수직선들은 모두 화면에 평행이 되어 있고 주유소 건물 안이 양 선들을 따라가보면 각각 두 개의 소실점에 이르게 된다.

▶ 선 원근법의 종류

다중 원근법



그림 27. 호크니의 미완성의 자화상과 모델



그림 28. 키리코의 어느 거리의 신비와 우울

한 작품 내에서 눈높이와 원근법을 다르게 적용시키면 혼란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 약식 원근법의 과정



1. 기본단위를 측정한다.
2. 폭과 높이가 1:1을 측정한다.
3. 1:2를 측정한다.
4. 나머지를 측정한다.
5. 화지 위에 기본 단위부터 새로 측정하여 표시를 한다.



그림 29. 비례 관측의 과정

▶ 약식 원근법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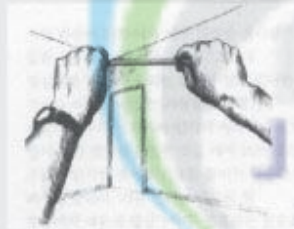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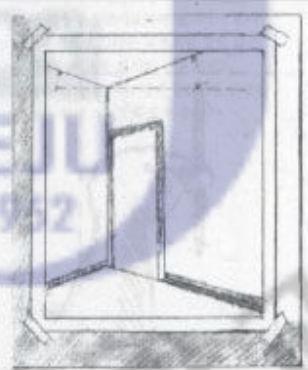


그림 30. 각도 관측의 과정



각도 관측은 수평, 수직선에 비교해서 관측된다.
 한 쪽 눈을 감고 정확히 수평이 되도록 연필을 잡고
 천장의 각도가 수평선과 비교해서 얼마인지 본다.
 이 각도를 형태로 기억하고 화면에 옮긴다.

▶ 약식 원근법의 주의사항

1. 모든 각도는 수직 수평선과 비교해서 관찰한다.
2. 틀의 가장자리는 수직 수평선을 의미하며 변하지 않아서, 실제 각도를 틀의 가장자리에 비교하여 그릴 수 있다.
3. 연필, 뷰파인더, 플라스틱 그림판 십자선의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
4. 보이는 그대로의 각을 그려내야 한다.
5. 그리고자 하는 가장자리와 수평으로 놓인 연필 사이의 각을 삼각형의 모습으로 기억한다.
7. 더 작은 각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 원근법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시작품을 통해 이해를 돕고, 약식 원근법의 과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관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흥미를 이끌어 내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E.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5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물을 그릴 때 비례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표 17. 5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관측법으로 그리기Ⅱ	차시	5/7		
학습목표 1. 인물 그리기의 비례법을 알고, 그릴 수 있다. 2. 인물 그리기의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비례)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동기유발의 예시-비례법)
전개	▷비례법으로 그리기에 대한 이해	▷인물 그리기의 표현 설명	▷설명듣기	15	PPT-3 (인물 그리기의 예)
	▷비례 재는 방법 (블랭크 그리는 방법, 인물비례)	▷작품 설명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PPT-4 (인물 그리기의 방법)
	▷인물 그리기	▷인물을 그릴 때 주의사항 설명	▷주의사항 듣고 생각하기	10	PPT-5 (주의사항)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인물 그리기	10	-학생작품 제시 (실물화상기)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6 (형성평가)

▶ 학습 목표

E.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5차시 수업 지도 PPT

1. 인물 그리기의 비례법을 알고, 그릴 수 있다.
2. 인물 그리기의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 잘려나간 두개골의 신비 - 두개골 분할 오류

“턱선과 머리끝 사이의 절반 되는 지점이 눈높이선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아니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림 31. 두개골 분할 오류와 정정된 그림

▶ 인물 그리기 1(반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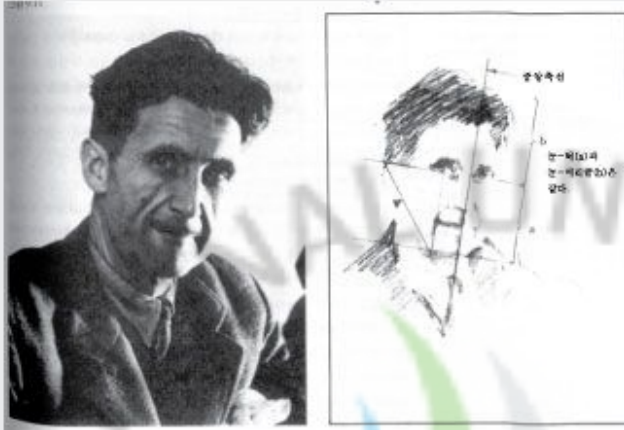


그림 32. 반측면의 비례

a와 b는 같다.
 눈-턱까지의 길이와
 눈-머리끝까지의
 길이는 같다.
 눈높이선과 중앙축선은
 직각이 되어야 한다.

▶ 인물 그리기 2(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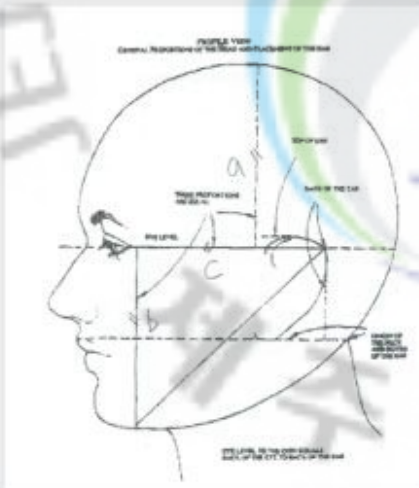


그림 33. 측면 도해

$a=b=c$
 눈높이에서 머리끝까지의 길이와
 눈높이에서 턱끝까지의 길이와
 눈높이의 눈끝으로부터 귀 뒤까지의
 거리가 같다.
 여러분은 이런 중요한 측정 방식을
 연상법을 써서 기억할 수 있다.
 ~에서 ~까지는 ~에서 ~까지와 같다.

▶ 인물그리기 3(블랭크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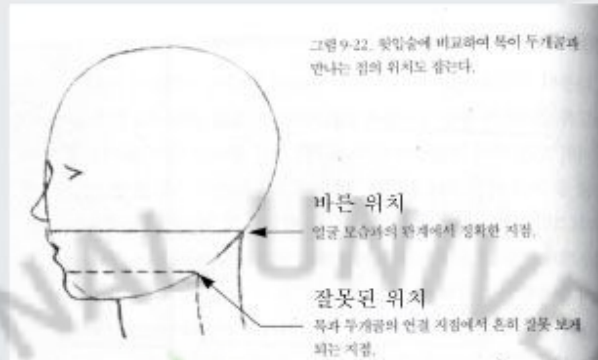


그림 34. 블랭크 채우기

귀 밑에서 코와 입의 중간 부분과 목이 시작되는 지점이 일치한다.

▶ 인물그리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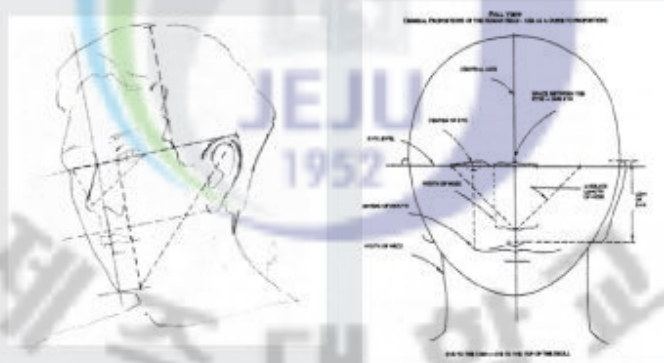


그림 35. 4/3측면의 자화상 도해, 정면 도해

▶ 인물 그리기의 주의사항

1. 눈높이에서 턱 끝까지의 거리는 눈높이에서 머리 끝까지의 거리와 같다.
2. 머리숱이 많으면 머리 끝이 눈높이 선 아래의 절반보다 크다.
3. 눈 사이의 공간은 거의 한 눈의 폭과 같다.
4. 양쪽 눈의 바깥쪽 끝과 코의 아래쪽 가운데를 이으면 역삼각형이 그려진다.
5. 콧방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보통 눈의 안쪽 끝에서 내려온 선과 닿는다.
7. 귀의 윗부분은 눈높이 선과 같거나 약간 위쪽이다.
8. 귀의 아래쪽은 윗입술과 거의 같거나 조금 위 혹은 아래다.

인물 그리기의 비례법을 통해 반측면, 측면, 정면의 인물 그리기의 간단한 비례법과 주의사항을 배우고 인물 그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F.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6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명암법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빛과 그림자와 양감을 통해 그리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표 18. 6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명암법으로 그리기	차시	6/7		
학습목표 1. 빛과 그림자와 양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명암법으로 개체를 그릴 수 있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 (동기유발의 예시)
전개	▷명암법으로 그리기에 대한 이해	▷명암법으로 그리기의 표현 설명	▷설명듣기	15	PPT-3 (명암법으로 그리기의 예)
	▷명암을 보는 방법	▷작품 설명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PPT-4 (명암법으로 그리기의 방법)
	▷명암법으로 그리기	▷그릴 때 주의사항 설명	▷주의사항 듣고 생각하기	10	PPT-5 (주의사항)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명암법으로 그리기	10	-학생작품 제시 (실물화상기)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6 (형성평가)

▶ 학습 목표

F.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6차시 수업 지도 PPT

1. 빛과 그림자와 양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명암법으로 개체를 그릴 수 있다.

▶ 그림자가 길을 밝힌다. - 빛의 논리, 명암법



그림 36. 빛의 논리, 명암법

단순한 빛과 그림자의 표현만으로도 형태 표현이 가능한가?

▶ 빛의 논리 - 명암의 4가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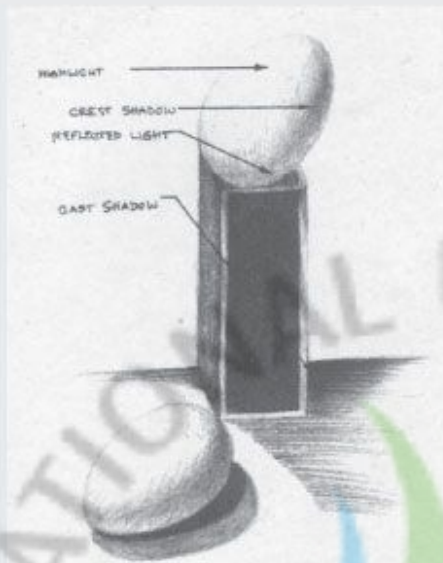


그림 37. 명암법에 의한 학생의 그림

하이라이트 (highlight)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직접 쏘이는 가장 밝은 빛

캐스트 새도 (cast shadow)

사물이 광원을 차단해서 생긴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반사된 빛 (reflected light)

물체 주변 표면에 쏘인 빛이 물체에 반사된 희미한 빛

크레스트 새도 (crest shadow)

둥근 형태의 꼭대기 부분에 진 그림자

하이라이트와 반사된 빛 사이에 생긴다.

평면에 3차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

▶ 명도 구분하기



그림 38. 헨리 푸셀리의 화가의 초상화

하이라이트 : 이마, 뺨 등

캐스트 새도 : 코, 입술, 손에 의해 생긴

반사된 빛 : 코의 옆면, 뺨의 옆면

크레스트 새도 : 뺨, 관자놀이의 꼭대기,

코의 꼭대기

▶ 학습 과정



그림 39. 명암법의 단계

- 흑연을 종이에 문질러 색을 입힌다.
- 십자선을 긋고 가장 밝은 부분부터 지우개로 지우기 시작한다.
- 빛과 그림자를 잘 살피고, 그림자의 각도를 수직, 수평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표현한다.

▶ 주의사항



그림 40. 니콜라스 푸생의 성(聖)가족

빛과 그림자는 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려야 한다.

화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광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존재하는 광원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빛이 형태를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빛의 방향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빛과 그림자의 표현만으로도 얼마든지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물체는 명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되며 명암의 단계와 적용, 빛의 조절을 설명한다.

G.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7차시 수업지도 계획안

단계적 드로잉 지도 과정 중에서 전체를 보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재빨리 파악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른다.

표 19. 7차시 수업지도계획안 예시

과목	미술	학년	1학년		
교재	미술(지학사)	연구자	김신혜		
소단원	형태로서 문제 지각하기	차시	7/7		
학습목표 1.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2. 제스처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및 학습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시작 ▷학습 목표 확인 ▷동기유발	▷인사, 출석 확인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 (전체를 보는 방법)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 인지 ▷감상 및 설명 듣기	10	PPT-1. 학습목표 PPT-2(동기유발의 예시-전체를 보는 방법)
전개	▷전체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이해	▷제스처 드로잉의 표현 설명	▷설명듣기	15	PPT-3 (전체를 보는 방법의 예) PPT-4 (제스처 드로잉의 방법)
	▷제스처 드로잉 방법 이해	▷작품 설명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제스처 드로잉으로 그리기	▷인물을 그릴 때 주의사항 설명	▷주의사항 듣고 생각하기	10	PPT-5 (주의사항)
		▷순회 지도 및 중간지도	▷제스처 드로잉으로 그리기	10	-학생작품 제시 (실물화상기)
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정리	▷형성평가지 제시 ▷설명하기 ▷용구 및 주변정리 시키기	▷문제풀기 ▷설명듣기 ▷주변정리	5	PPT-6 (형성평가)

▶ 학습 목표

G. 단계적 미술 지도 계획안 - 7차시 수업 지도 PPT

1.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2. 제스처 드로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전체를 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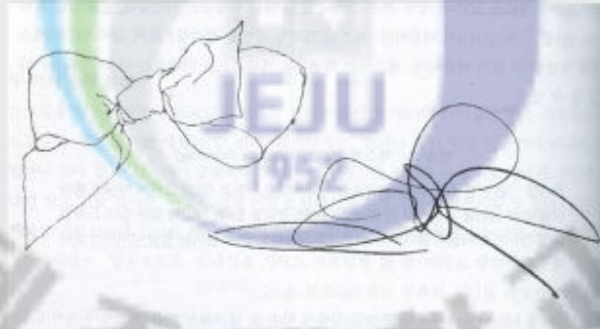


그림 41. 건부어 드로잉과 제스처 드로잉

위의 제스처 드로잉만 가지고도 물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지각능력은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스처 드로잉



그림 42. 제스처 드로잉 학생 작품

재빨리 덩어리 전체를 보고 그리는 기법으로, 관찰력을 기르고, 전체를 보는 방법을 익힌다.

▶ 주의 사항

처음에는 화지 안에 꼭 차도록 그려야 한다.
드로잉 하나는 3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될수록 시간 안에 많은 사항을 보아야 한다.
계속 팔을 움직여서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예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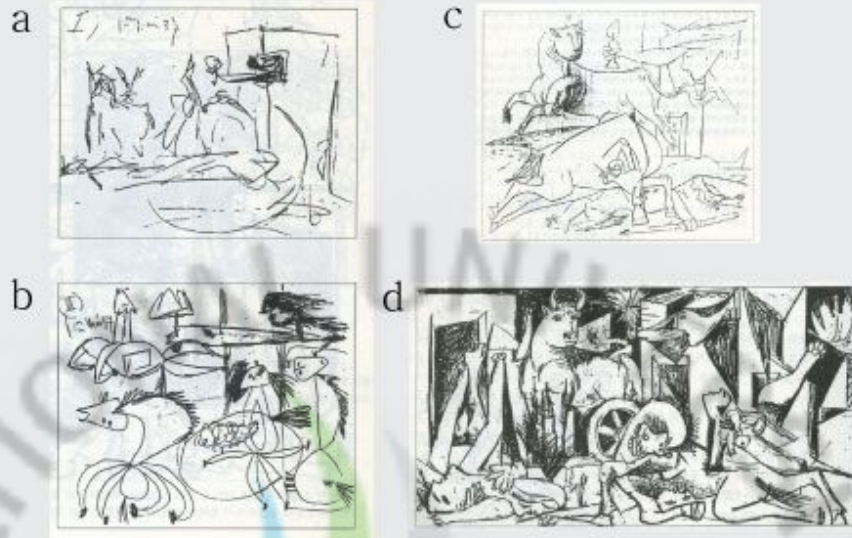


그림 43. 피카소의 게르니카 습작 드로잉 과정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기르는 방법으로 제스처 드로잉을 익힘으로써 드로잉의 정밀묘사만 있고, 어려운 석고 덧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낙서도 그 의미를 가지면 드로잉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학생들의 드로잉에 대한 흥미 유지를 시키고, 전체를 보는 시각 능력을 키우게 해 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드로잉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 중에 시지각을 활용한 기본법의 원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모형 제시를 통해 드로잉 교육의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초 드로잉의 접근을 좀 더 쉽게 하고, 관찰능력과 조형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 영역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로잉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다섯가지 기법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IV. 결 론

미술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매개체로 드로잉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데 따른 드로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중학교 미술교과과정을 새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간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줄이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학습 범위와 내용을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체계적인 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과 수업 중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드로잉 영역에 대한 지도방안을 좀 더 폭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여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개성을 막힘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방안으로 두뇌의 인지 기능을 기초로 한 관찰 표현을 위한 준비 활동과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른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에 따른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로잉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고, 단계적인 드로잉 학습 프로그램의 시도로 조형적 관찰을 통하여 시지각을 훈련하고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습 프로그램에 있어 수업의 도입 단계에는 긴장 완화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표현의 단계에서는 오른쪽 두뇌를 활용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기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형태에 대한 관념 탈피하기 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표현의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표현에 있어서의 자신감 회복을 통해 전인적 인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시된 드로잉 지도 방안은 평면회화와 기초 드로잉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좀 더 적용 범위를 넓혀서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심도 있게 분석되어지기 바라며, 아울러 중학교 드로잉교육에 적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능보다는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아이들의 조형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듯한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관찰표현 과정의 효율적 지도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권여현(1999), 「드로잉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재원.
- 김영나(2001), 「드로잉」, 서울여대조형연구소 공편, SIGONGART.
- 김영나(1998), 「조형과 시대정신」, 열화당.
- 김춘일(1995), 「아동미술론」, 서울: 미진사.
- 이강일(1997), 「소묘의 이해」, 서울: 미진사.
- 주종근(1995), 「잠재에서 창조로」, 서울: 미진사.
- 난조 마모루(2006), 「태생으로 본 미술사」, 고경래 역, 예경.
- 로베트 헤일(2007), 「대가에게 배우는 드로잉」, 박성은 역, 비즈 앤 비즈.
- 베티 에드워즈(2000),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강은엽 역(2000), 나무숲.
- 베티 에드워즈(2006),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기」, 비즈앤비즈편집부 역, 비즈앤 비즈.
- 클라우디아 베티(1998), 「현대 드로잉 기법」, 하영식 역, 서울: 미진사.
- 키몬 니콜레이즈(2006), 「그림, 자연스럽게 그리기」, 서수형 역, 비즈 앤 비즈.

<논 문>

- 곽운호(2008), “미술과 수업의 창의적인 드로잉 지도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지화(2005), “드로잉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혜연(2001), “단계적 드로잉 지도를 통한 보고 나타내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중덕(2003),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묘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관식(2003), “중학교 미술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6, 7차를 중심으로”, 우석

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현수(2004),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드로잉 수업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민엽(2001), “기운생동 표출을 위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기 타 문 헌>

김형숙(2006), 「드로잉과 교육:공교육에서 드로잉 교육 운동」, 서양미술사학회.

이주연(2001),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교육인적자원부, 교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교학연구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 교과서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삶과 꿈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지학사 중학교 1~3학년 미술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 7종 미술교과서 지도서.

<ABSTRACT>

The research for drawing of middle school art education

Shin-Hea Kim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Jin Pack

The importance of drawing is increasing in every part of modern art. Although drawing in the past was secondary but it becomes enlarged and independent part in modern art of 20 centuries.

Our drawing educational system does not catch up this change yet, the content and composition of drawing educ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Drawing education is not sufficient yet eventhough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has lasted over 100 years.

Drawing of middle school art education not only express the object just like a real picture but also find out the beauty inside of it with sincere observation so that we can feel real and vivid feeling. Drawing is the foundation of art education and it needs to be developed continuously.

The research to develop the youths' sensibility and personlity by systematic drawing education needs to activate drawing education of ar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increasing the fundamental expressive

and observing ability by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the basic drawing program which students can catch up.

I researched for analysis of the textbook, characteristic of drawing, and various kinds of teaching methods by developing drawing program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In the introduction, I set up the purpose, method, and range of research. In the main subject, I study about the reality and the limit of drawing education of middle school and analyze it. I present an example of teaching method of drawing by making drawing lesson program to study systematic drawing lesson method.

By this, as teaching schedule of drawing education, At first, Conceptual changes for drawing. In the second, Enlargement the range of objects which are able to be expressed by drawing. In the third, Presentation of changed education to remind the final purpose of art education.

Above this, This research describes some problems of drawing lessons of middle school. It also helps to express objects with pure sense of sight out of students' conceptual visual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that drawing education helps to make youths' sensibility and personality creative abundantly.

It also helps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the new drawing teaching method and teaching effectively in the art education of middle schoo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